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中國人 韓國語 學習者의 終聲 發音
誤謬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勛 希

2019 年 2 月

中國人 韓國語 學習者의 終聲 發音 誤謬 研究




指導教授 裴 泳 煥

金 勅 希

이 論文을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12 月

金勅希의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신 우 봉	
委 員	최 대 희	
委 員	배 영 환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 年 12 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5
II. 이론적 논의	7
1. 지역어 조사에서 구술 발화 조사와 전사 방법	8
2.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 조사와 전사 방법	9
2.1. 질문지의 내용	9
2.2. 제보자 선정	14
2.3. 전사 방법	17
3. 한국어 교육의 발음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 발화 조사가 가진 의의	18
III. 발음 오류의 양상	21
1. 누락	22
1.1. 종성 /ㄱ/, /ㄷ/, /ㅂ/의 누락 오류	24
1.1.1. 종성 /ㄱ/의 누락 양상	24
1.1.2. 종성 /ㄷ/의 누락 양상	33
1.1.3. 종성 /ㅂ/의 누락 양상	36
1.2. 종성 /ㄴ/의 누락 오류	40
1.3. 종성 /ㄴ/, /ㅁ/, /ㅇ/의 누락	47
1.3.1. 종성 /ㄴ/의 누락 양상	47
1.3.2. 종성 /ㅇ/의 누락 양상	51
1.3.3. 종성 /ㅁ/의 누락 양상	54

2. 대치	56
2.1. 종성 /ㄱ/, /ㅂ/의 대치 오류	57
2.2. 종성 /ㄴ/, /ㄹ/, /ㅇ/의 대치 오류	61
2.3. 종성 /ㄷ/의 대치 오류	65
3. 첨가	66
IV. 분석과 시사점	69
V.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제보자 목록	5
<표 2> 구술 조사에서 질문의 항목	9
<표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	23
<표 4> 종성 /ㄱ/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25
<표 5> ‘체언+조사’ 환경에서 /ㄱ/누락 오류	30
<표 6> 용언 어간에서의 /ㄱ/누락	32
<표 7> 종성/ㄷ/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33
<표 8>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ㄷ/누락 오류	34
<표 9> 종성 /ㄷ/누락 오류가 발생한 용언	35
<표 10> 종성 /ㅂ/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36
<표 11> 용언에서의 /ㅂ/누락 오류	39
<표 12> 종성 /ㄹ/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41
<표 13>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ㄹ/누락 오류	44
<표 14> 용언에서 종성 /ㄹ/누락 오류	45
<표 15> 명사류에서의 /ㄴ/누락 오류	47
<표 16>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ㄴ/누락	49
<표 17> 용언에서 종성 /ㄴ/의 누락	50
<표 18> 종성 /ㅇ/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51
<표 19>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ㅇ/ 누락 오류	53
<표 20> 종성 /ㅁ/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54
<표 21> 다양한 환경에서 종성 /ㅁ/의 누락 오류	55
<표 22> 종성 /ㄱ/의 대치 오류	57
<표 23> 종성 /ㅂ/의 대치 오류	60
<표 24> 종성 /ㅁ/의 대치 오류	61

<표 25> 종성 /ㄴ/과 /ㅇ/의 상호 대치 오류	62
<표 26> 종성 /ㄹ/의 대치 오류	65
<표 27> 종성 /ㄴ/ 발음 첨가 오류	66
<표 28> /ㄴ/을 제외한 종성 발음 첨가 오류	68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종성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누락, 대치, 첨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계획된 단어나 문장, 설문 위주의 조사를 벗어나 보다 실제적인 오류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발화상태에서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위해 지역어 조사에서 그 지역의 토박이를 통해 발화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한국어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차용하였다.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면서도 조사자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종성 발음 오류 이외의 다른 발음 오류나 문법적 오류와 같은 여러 오류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적절하다. 또 제보자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거나 다른 제보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별적 오류 발견에도 용이하여 분석 결과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 지도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이용해 조사한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오류 예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 상태에서 체언의 경우 조사와 함께 쓰이는 환경에서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용언의 경우 활용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발음되는지 다각도에서 오류 예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조사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은 한국어 연구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연구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제보자의 수나 조건 등의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오류를 조사하는 방법론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구술 발화 자료가 차츰 누적되면 기존 자료와 비교와 대조도 가능하고 연구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자료로 손색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발음 오류를 유형에 따라 크게 누락, 대치, 첨가로 분류하고

각각의 오류가 나타나는 어휘는 고유어인지 한자어에 속하는지, 체언류인지 용언인지, 오류는 어휘 내에서 몇 번째 음절에서 발생하는지, 인접하는 음절의 특징은 어떠한지, 누락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부분 누락인지 완전한 누락인지 등 오류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국어에서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종성 /ㄱ/, /ㄷ/, /ㅂ/의 폐쇄음인 경우에 누락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중국어의 음절 말에는 우리말과 달리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n],[ŋ] 뿐이고, 이 종성 발음에 함께 사용가능한 모음의 종류도 한정적이다. 음절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에서 발음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맞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연음이나 경음화는 실현하면서 종성만 누락하거나 같은 어휘임에도 오류를 실현하기도 하고 바르게 발음하기도 하는 등, 종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또 비음화나 축약과 같은 우리말의 음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치에서는 모국어에 있는 발음인 /ㄴ/과 /ㅇ/의 상호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ㄹ/, /ㄴ/, /ㅇ/ 비음 간의 대치 양상을 보임으로써 조음 방식이 같은 종성들을 서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첨가 오류는 모든 제보자에게서 종성/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동일한 자음을 첨가하는 형태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국어의 ㄴ첨가 음절 규칙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오류 양상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체언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조사나 형태소와 같은 인접한 상황을 고려한 어휘와 통으로 묶어서 발음 교육해야 하며, 용언은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형의 발음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발적인 음소나 음절보다는 실제 발화에서 쓰이는 어절 이상 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모국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종성 발음이 있다는 것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종성 발음이 초성과는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도 반드시 짚어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음 학습을 초급단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숙달도에 따라 제시하는 음운 규칙의 기준을 마련하여 달리 지도하며 학습자에게 늘 익혀야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종성 발음 오류를 ‘구술 발화’라는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오류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는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미리 설계되고 계획된 인위적인 실험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긴장하고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여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나타났던 오류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낭독체를 주요 자료로 삼았던 이전의 연구 경향도 중요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오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오류를 밝히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대화체를 수집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의 조사에 주목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한 끝에 발음 오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한국어 교육에서 다뤄 왔던 여러 방법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방언학 연구자들의 지역어 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구술 발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는 아니지만 기존의 조사 방식들에 비해 조사자와 제보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생활에서 실제 일어나는 발음현상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유창성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어느 한 시기에서 국한하지 않고 언제나 배우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발음은 모국어의 간섭을 크게 받기도 하고 습득 과정에서 일찍 굳어져버리는 분야이기도 하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교과 과정에서 문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발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만 중점적으로 교육되고 중, 고급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발음은 초기에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고착화되어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처음에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급에서 제대로 된 발음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중, 고급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초기에만 배워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교정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에서의 오류에 주목하고 모국어인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아 특히 오류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짚어 보면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발음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순서나 교육 방안과 같은 교육 전략을 세우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연스러운 발화 상태에서 조사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까지의 낭독체나 설문 조사와 같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결과들과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국내 여러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검토한 기존 논문은 이미 여러 편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발음의 오류를 조사하고 그 경향과 원인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음운, 문법, 어휘의 포괄적 범위로 나누어 연구한 이병운(2006)을 비롯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밝히고 그 지도방법을 제시한 백소영(2008)의 연구가 있는데 백소영(2008)은 발음 오류의 원인은 음운의 차이도 있지만 발음 습관으로 인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충돌에 의한 음운 규칙 적용 양상을 연구한 김태경·백경미(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3년 이상인 고급 학습자들에게서도 음운 규칙의 미습득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

며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교육이 고급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종성 발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김지혜(2005), 양순임(2005), 김진석(2013), 윤은경(2013), 장향실(2016), 김진호(2018), 유소영·강현화(2018) 등이 있다. 김지혜(2005)와 양순임(2005)에서는 한국어 음절 종성에 중국어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자음이 있으므로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고, 김진석(2013)에서는 숙달도와 단계별 특성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여러 가지 음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 발음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발음 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은경(2013)에서는 한국어 음절 구조 특성 상 음절 말의 종성이 불파되어 지각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조사 선택에서의 오류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장향실(2016)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의 한국어 음절 종성 산출 차이를 비음화 오류현상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김진호(2018)에서는 장애음 및 유음의 비음화 오류가 초급에서는 철자법식 발음에 의해 주로 나타나고 중급에서는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을 밝히며 이를 교수 방법 개발이나 교재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소영·강현화(2018)에서는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였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권 학습자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종성에서 특히 높은 오류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고, 종성을 발음하지 못하는 종성 누락 오류가 특히 크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태경·박초롱(2014)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ㄷ>>ㄱ>ㄴ>ㅇ>ㄹ>ㅇ>ㅂ순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남을 밝히고 폐쇄음 /ㅂ/의 오류비율이 /ㄴ/과/ㅇ/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예상 밖의 결과로 여기고 이것은 모국어 음운 체계가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언어 간 음운 대응만으로는 모든 오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은주·우인혜(2013)에서는 폐쇄음/ㄱ/./ㄷ/./ㅂ/을 중심으로 중국어에는 없는 한국어 발음을 위해 먼저 음절구조의 차이를 깨닫게 하기위해 한국어 음절구조를 중국어 음절구조에 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초성과 종성은 서로 다른 음가이므로 종성 발음의 다른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종성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연구는 /ㄱ/./ㄷ/./ㅂ/./ㄹ/발음의 오류를 강조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위국봉(2014)에서는 비음 종성에 선행하는 모음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ㄴ././ㅇ/종성 발음의 오류는 주로 두 종성을 혼동하는 유형이라고 분석하였다. 장찌엔(2016)에서도 비음 종성의 /ㄴ././ㅇ/음절의 발음 오류에 주목하여 음절 유형의 차이가 음운 체계 및 음소 배열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겹받침의 오류 연구로는 한서인(2011)에서 연음 규칙과 겹받침 오류를 분석하고 교수방안을 마련한 것과 박시균·최경복(2014)에서 겹받침의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는 대부분 특정한 단어나 구, 문장을 연구자가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를 조사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실험은 연구자들의 계획과 설계에 의한 음소나 어휘 또는 문장과 같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설문 조사 형식에 그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연구는 남윤주·홍우평(2014)과 백경미(2018)를 찾을 수 있었다. 남윤주·홍우평(2014)에서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대용량의 학습자 자연 발화 코퍼스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연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와 과제 중심 의사소통, 스토리 재구성, 자기 성찰 등의 기법을 소개 하였고, 실제로 위 방식을 통해 발화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심 있게 살펴본 자유인터뷰의 경우 고급/중급 피험자에게는 적절한 발화 유도 기법이지만 초급에서는 난이도 높은 과제라고 밝혔으며 자연발화 코퍼스 구축을 통해 상당한 연구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자연 발화 코퍼스 구축의 중요성과 수집 방식을 보여준 데에는 분명 의의가 있지만 수집된 발화로 오류를 분석하는 실제 사용의 예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백경미(2018)에서는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관찰하여 음운 환경에 따라 어떤 유형의 대치가 나타나는지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어말 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이 된 자유 발화는 중국인 학습자 두 명이 30분씩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고, 화자마다 발화 개수가 다르므로 화자별로 동일하게 100개씩의 발화를 전사하였다. 전사 결과 어말 종성에서의 대치는 주로 조음위치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오류조사를 한

연구로는 유일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으나 어말 종성에서 보여 준 자음 대치 오류 사례는 단 네 개로 오류 양상의 양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설계한 실험 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단어 내에서의 위치나 앞뒤의 음운 환경에 따른 종성 발음의 오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낭독체보다 대화체 자료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최대한 자연 발화상태에 가까운 조사를 통해 실제로 발음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문형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실제 오류의 양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고, 그 해결책을 방언학에서 특정한 지역의 음운, 문법, 어휘 현상을 수집할 때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를 대상으로 조사자가 일대일로 실제 발화를 유도하여 조사하는 방식인 구술 조사 방식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 구술 발화 조사 대상은 국내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10대 ~20대의 중국인 학습자이고, 모두 한국어 공부를 3급 이상 수료했거나 토픽(TOPIK) 3급 이상을 소지한 중급 이상의 학생들이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보자 목록

제보자 일련번호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 수준	고향	성별	나이
#1	1년 6개월	토픽 3급	청도	남	1999년생
#2	1년 6개월	토픽 4급	광동	여	1999년생
#3	3년(중국)2개월(한국)	토픽 4급	남창	여	2000년생
#4	2년	토픽 4급	진흥도	여	1999년생
#5	2년	토픽 4급	간수성	여	1995년생

#6	1년	토픽 4급	산동성	남	1998년생
----	----	-------	-----	---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한 질문들은 한국어교육어휘내용개발 1,2,3 단계¹⁾에서 추출한 어휘들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제보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위주로 조사하기 위해 일상생활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질문 내용을 많이 넣었고, 제보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하였다. 빈 강의실에서 조사자와 제보자가 함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녹음하였다. 녹음한 기기는 SONY ICD-PX470이고, mp3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총 375분이고 이것을 연구자가 직접 듣고 전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전사방식은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의 『질문지의 활용과 조사지침』을 따르고 한국어 방언 연구에 사용되는 구술 발화 전사 방식을 따랐다.

제보자의 발화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일련번호를 붙였으며, 행동이나 단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로 표기하였다.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를 구분하기 위해 #1, #2, #3과 같이 # 뒤에 숫자를 붙여 표기하였다.

조사자의 발화는 맞춤법에 맞춰 적었다. 그리고 조사자의 발화 중에서 되묻거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맞장구치는 등의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발화 부분은 생략하였다. 전사 자료에서 종성 발음이 실현되어야 하는 어휘를 모두 추출하고 7개의 자음별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어휘만을 따로 골라내고 그 어휘들을 고유어와 한자어로,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오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보았다. 조사 방식이나 질문 내용, 제보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어지는 이론적 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 강현화 외(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2단계』, 강현화 외(2014),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3단계』.

Ⅱ.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지역어 조사에 쓰이는 구술 발화 조사라는 방식을 한국어 교육에 도입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발화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계획된 연구로 수집되고 활용했던 자료들처럼 오류를 추출하고 분석해 낼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 연구 자료에 비해 어떤 장점과 의의가 있는지 살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어 조사에서 쓰이고 있는 구술 발화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어를 대상으로 한 방언 연구 조사에서 ‘구술 발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 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방언 연구에서는 구술 발화를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으나 2004년부터 남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역어 조사 사업을 위한 질문지에는 어휘, 음운, 문법 조사항목 외에 구술 발화 조사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박경래(2007)에서는 구술 발화를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답하는 상황에서 발화되는 언어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에 의해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체’로 정의내리며, 자연 발화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면담 상황이 아닌 비격식 상황에서 언어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구술 발화는 질문에 대한 대답, 면담에서의 말, 옛날이야기, 과거의 경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술 조사 자료는 체계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음운·문법·어휘에 대한 자료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음운·문법·어휘 조사 때에는 얻을 수 없는 문장 차원의 자료뿐만 아니라, 담화 차원의 자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어의 종합적인 정보가 구술 발화에 녹아있는 것이다.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 시대의 사회상까지 담고 있는 것이 구술 발화인 셈이다.²⁾

2) 김정대(2009:3) 인용.

1. 지역어 조사에서의 구술 조사와 전사 방법

한 사람의 말하는 이가 일방적으로 긴 시간동안 발화하는 담화의 특성상 조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조사하려면, 우선 질문 항목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제보자를 구해야 하며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전사 기준과 녹음 보존 방식도 갖춰야 한다. 이에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에서 2005년에 발간한 『질문지의 활용과 조사지침』과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 조사의 기본 방향과 지침, 조사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 따르면 구술 발화의 질문 항목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 문화유산으로서 원형대로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휘, 문법, 음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자연스러운 방언들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직, 배열되어 있고 조사 항목은 9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³⁾ 김정대(2014)에서는 이런 평준화된 구술 발화 질문지가 갖는 장점으로서는 질문지에 따라 구술 발화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게 될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제보자의 선택과 관련하여 김정대(2009)에서는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면사무소 등의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 가서 방문 목적과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 받는 방법이 있고, 친구나 선후배 또는 제자처럼 처음부터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지역에서 조사하더라도 제보자에 따라 구술 발화의 양과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제보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어 조사사업을 주관한 국립국어원에서는 구술 발화 조사에서 제보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⁴⁾

『질문지의 활용과 조사지침』에 따르면 구술 발화는 15시간 내외의 분량을 조사

3)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1), 1.2. 일상 의례(8), 1.3. 생업 활동(4), 1.4. 의생활(3), 1.5. 식생활(3), 1.6. 거주 생활(3), 1.7. 질병과 민간요법(2), 1.8. 세시 풍속과 놀이(3), 1.9. 특수 지역 생활(4)이다. ()안의 숫자는 세부 항목의 개수로 여기에는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① 주제보자는 3대 이상 조사 지역에서 거주한 70세 이상의 토박이로 한다. ② 가능한 무학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은 인정한다. ③ 오랜 기간 동안 외지 생활 경험이 있거나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하여 그 지역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4시간 정도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 파일에 전사한다고 되어 있다.⁵⁾

2.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 조사와 전사 방법

이 연구는 지역어 조사에서의 구술 조사 지침에 기반을 두었지만,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는 조금 다른 지침과 방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기준들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실정을 고려하여 다소 변화를 주었다.

2.1. 질문지의 내용

먼저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지역어 구술조사 내용을 발음 오류 구술 조사 내용에 알맞게 9개의 항목을 아래 <표 2>과 같이 고쳐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어 구술 조사 질문지에서와 같은 각 장의 세부 항목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의 연구를 위해서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구술 조사에서 질문의 항목

	지역어 구술 조사	발음 오류 구술 조사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제보자의 고향과 유학배경
• 1.2.	일상 의례	주변 인물(가족, 친구, 선생님 등)

5) ①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절 단위의 끝은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 한다. ② 제보자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하나의 주제로 구술하는 내용 중간에 들어간 조사자의 말은 음성 자료로는 남기고 전사는 하지 않는다. 특히 단순 수공이나 제보자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는 경우는 전사하지 않는다. ④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한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한다. ⑤ 조사자의 발화 앞에는 @표를 하고 제보자의 발화 앞에는 #표를 한다. ⑥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부호를 넣는다.

• 1.3.	생업 활동	아르바이트, 학업 활동, 진로
• 1.4.	의생활	의생활
• 1.5.	식생활	식생활
• 1.6.	거주 생활	주생활
• 1.7.	질병과 민간 요법	고민, 스트레스
• 1.8.	세시 풍속과 놀이	취미, 운동, 여행
• 1.9.	특수 지역 생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이 조사 내용의 항목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어 구술 조사 항목의 큰 틀에서 단순히 조금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서 만들었다. 제보자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질문하기 위해 질문 내용의 순서는 따지지 않았다. 또한 자연 발화에 가까운 구술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대화에 일정한 제약이나 다른 종류의 엄격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항목의 질문을 했을 때 제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대답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따라 조사자가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기도 하고, 맞장구치기도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자가 그에 대한 대답이나 짧은 조언을 하기도 했다.

조사자가 질문에 사용할 어휘나 제보자의 구술 발화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여 준비했던 어휘는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 1, 2, 3 단계’⁶⁾를 참고하여 추출하였고, 문법과 표현은 4급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조사 항목으로 지역어 구술 발화 조사에서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이었던 것을 (1)‘제보자의 고향 환경과 유학을 오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구성해 보았는데 이 질문은 자연히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항목인 ‘주생활’,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과 연결시켜서도 질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전사 자료에 있는 (1) 항목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 내용이다. 전사 자료에 있는 대화 번호는 그대로 기재하였다.

6) 강현화 외 13명. (2012-2014) 국립국어원.

- (1) 55. @ 한국어는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57. @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71. @ 그러면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169. @ 남창(제보자의 고향)에는 바다 있어요?
 171. @ 고향 집 주변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지역어 조사에서의 ‘일상 의례’ 항목은 제보자들이 대부분 아직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학생 신분이라서 발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알고 있는 의례를 표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도 제한적이라고 여겨졌기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2)‘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의 주변인물’로 주제를 변경하여 질문해 보았다.

- (2) 223. @ 아까 엄마 옷이 많다고 했는데,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234. @ 그럼 아빠를 닮은 건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91. @ 4호관에 살 때는 어떤 친구와 살고 있었는데요?
 194. @ 여자 친구를 사귀다면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지역어 구술 조사의 ‘생업활동’으로 되어있는 세 번째 항목은 ‘아르바이트나 학업’, 미래의 직업과 관계된 ‘진로’의 항목으로 주제를 변경, 조사하였다. 조사자가 한 질문 내용은 (3)과 같다.

- (3) 136. @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138. @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40. @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은 주제 변경 없이 그대로 조사하였다. 각각

(4)‘의생활’, (5)‘식생활’, (6)‘주생활’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이기도 하고, 평소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 비교적 수월하게 발화가 진행되었다. 실제 구술 발화 조사 자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4) 99. @ 옷은 어디에 넣어놔요? 어디서 꺼내요?

111. @ 옷은 어떻게 빨아요?

(5) 126. @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요리? 뭐로 만들어요?

145. @ 아침에 주로 뭐 먹어요?

147. @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151. @ 떡볶이를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155. @ 집에서 누가 요리를 주로 해줘요?

특히 (5)‘식생활’의 항목과 (6)‘주생활’ 항목에서 많은 양의 발화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 연구에서 질문지의 항목이나 질문 내용의 비율, 중요도와 같은 구술 발화 조사의 기준을 수정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6) 123. @ 기숙사 몇호관이에요?

127. @ 문을 열면 기숙사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129. @ 창문도 있어요? 뭐가 보여요?

47. @ 추울 때는 어떻게 난방을 해요?

일곱 번째 항목의 주제로 지역어 조사에서는 ‘질병과 민간요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물어볼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는 (7)‘고민과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어 조사 주제로 넣어 보았다. 대화하다가 우연히 질병과 민간요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어 조사에서의 구술 발화

조사 시 유의할 점에 ‘질병과 민간요법’을 주제로 질문할 때 제보자가 거부감을 갖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의 구술 발화 조사 시에도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들의 반응과 조사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적절한 수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 272. @ 요즘 고민이나 힘든 일 있어요?
- 286. @ 한국에서 사는 거는 만족해요? 힘든 일 없었어요?
- 345. @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 160. @ 목이 아파서 엄마가 가르쳐준 민간방법 운동이에요?
- 162. @ 어떤 동작이에요? 어떻게 움직여요?
- 168. @ 그거 하나까 좀 낫는 거 같아요?

여덟 번째 항목인 ‘세시 풍속과 놀이’는 본 연구에서 (8)‘취미, 운동, 여행’을 주제로 질문 조사하였고, 아홉 번째 항목인 ‘특수 지역 생활’은 (9)‘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한국에서의 명절’ 등의 주제로 조사하였다. 이 내용은 일곱 번째 항목인 ‘고민과 스트레스’, 세 번째 항목인 ‘아르바이트’나 ‘진로’와 같은 발화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 (8) 229. @ 그럼 친구랑 서울에 다녀온 이야기 좀 해 봐요. 언제 갔어요?
- 314. @ 한국에서 여행해 본 곳은 어디어디 있어요?
- 324. @ 그럼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인데요?

- (9) 310. @ 앞으로는 여기서 얼마나 공부할 거예요?
- 288. @ 같은 과에 신입생 친구들은 사귀지 않았어요?
- 300. @ 뭔가 공부할 계획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지역어 구술 발화 조사 질문의 항목을 한국에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구술 발화 조사 후에 자료를 질문의 항목별로 살펴보았더니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의식주 생활과 주변 인물, 취미 등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 발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었고 제보자에 따라 질문 가능한 항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제보자의 발화 양을 늘리기 위해 조사에 세부적인 항목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조사 항목의 배열 순서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한국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 질문지 문항을 보완하는 작업이 남은 과제라 하겠다.

2.2. 제보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김정대(200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자가 기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보자를 선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여러 오류 양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선택할 때, 제보자의 선정 기준이 굳이 필요할까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⁷⁾, 이번 조사에서 효율성이나 결과물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제보자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본다.

- 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
- ②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10대 후반 ~ 20대 초반
- ③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한 중급 이상⁸⁾의 학습자
- ④ 조사에 협조적인 사람
- ⑤ 음성언어에 오류가 많더라도 말하기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사람

7) 이어지는 '1.3.한국어 교육의 발음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 발화 조사가 가진 의의'에서 논하겠으나 구술 발화 조사를 활용한 발음 오류 조사는 학습자 전체의 오류 산출에도 의미가 있지만 개개인의 발음 오류를 찾아 맞춤 지도도 가능하다는 의의도 있다고 봄으로 제보자 선택에 있어 제약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8) 한국어학당에서 3급 이상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

실제로 가장 많이 고려한 조건은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한가이다. 현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토픽(TOPIK)시험에서 중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말하기 영역에서는 그만큼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조사자는 교실 수업이나 평소의 생활에서 관찰했을 때 비교적 한국어 듣기의 이해도가 높고, 비록 오류가 많다하더라도 자신의 말하기에 주저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으며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습자 위주로 제보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앞의 기준을 가지고 물색하여 선정한 제보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 기본정보 : 1999년생, 남, 중국 청도 출신, 중국에서 주말만 간간히 한국어 공부 약 2년, 한국에서 약 1년 공부 중, 토픽 3급.
- 음성적 정보 : 목소리는 적당하고 말하기에 자신감이 있지만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음.
- 기타 :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편, 자국 친구들보다 타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로 말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 한국 대학 입학 예정.

(#2)

- 기본 정보 : 1999년생, 여, 중국 광둥 출신, 한국어 공부 한국에서만 약 1년, 토픽 4급.
- 음성적 정보 : 목소리는 작고 가는 편, 전사 결과 종성 발음 대치 오류가 다른 제보자에 비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 기타 : 자신이 하려는 말을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음. 한국 대학 입학 예정.

(#3)

- 기본 정보 : 2000년생, 여, 중국 남창 출신, 한국어를 중국에서 3년간 공부, 한국에 와서 공부한 지는 2개월 남짓, 토픽 4급.

- 음성적 정보 : 목소리 매우 작고 말하기 속도 느린 편,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함,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음.
- 기타 : 취미가 없고 생활이 단조로워 이야깃거리가 다양하지 못함. 한국 대학 입학 예정.

(#4)

- 기본 정보 : 1999년생, 여, 중국 진흥도 출신, 한국어 공부 약 2년 이상, 토픽 4급.
- 음성 정보 : 목소리 적당, 말하기 속도 빠른 편, 발화 자료를 전사해 보니 예상보다 발음 오류는 꽤 있었으나 가장 많은 어휘를 사용함.
- 기타 :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활동적이며 취미가 다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풍부했음. 현재 대학교 학부에서 공부 중.

(#5)

- 기본 정보 : 1995년생, 여, 중국 간쑤성 출신, 한국어 공부 중국에서 2년 정도 (대학교 동아리) 한국에서 약 6개월, 토픽 4급.
- 음성 정보 : 목소리 적당, 발음이 또렷한 편.
- 기타 : 조용하고 느긋한 성격, 한국어의 영역 중에서 말하기를 가장 잘하고 싶어 노력함. 한국 대학 학부에 편입학 예정.

(#6)

- 기본 정보 : 1998년생, 남, 중국 산둥성 출신, 한국어 공부 1년, 토픽 4급.
- 음성 정보 :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음. 말하기에 매우 자신 없어함. 문장을 끝까지 구사하지 않고 단답식의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음.
- 기타 : 타의에 의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열의가 부족함. 한국에서도 자국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며 한국어로 말하기는 많이 하지 않는 상태. 현재 한국 대학 학부에서 공부 중.

제보자들의 구술 발화를 분석한 뒤 특징적인 점을 표기해 보았다. 음성 정보나

기본 정보 이외에 기타 정보에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포함한 제보자별 특징을 표기했는데, 관심사나 취미가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의 제보자의 경우 비교적 이야깃거리가 많고 대화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다양한 내용의 항목을 조사할 수 있었고, 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휘를 조사할 수 있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취미나 관심사가 한정적인 제보자와는 시간을 많이 들여도 질문에 대한 단순하고 단편적인 답변 정도의 짧은 내용의 대화밖에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 조사 방법은 초급보다는 비교적 긴 대화가 가능한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⁹⁾ 초급 학습자들을 제보자로 할 경우 질문의 항목이나 어휘 등을 가급적 학습 수준에 잘 맞춰 가능한 긴 발화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짧은 발화에서도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구술 발화 조사 기법은 어느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는 조사 방법일 것이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제보자의 남녀 성비나 출신 지역, 연령대,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 등의 제보자의 조건을 맞추어 조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 조사에 활용해 보고 발음 오류의 양상을 밝힐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출신 지역별로 제보자를 선정하거나 연령대별 또는 한국어 학습 기간별로, 한국어를 공부한 곳이 자국인지 한국인지에 따라, 등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 연구, 조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사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총 375분의 구술 조사 자료를 전사하였다. 전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한컴오피스 한글(HWP)’로 하였고, 전사 파일의 명칭은 조사일자와 전사자 번호로만 간단히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2일에 첫 번째 제보자를 조사하여 전사한 파일명은 ‘20180712_#1’이 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계속될 연구를 위해 제보자의 성별, 학습 수준(초, 중, 고급으로 분류)이나 국적, 등의 구체적인

9) 남윤주(2014:205)에서도 자유인터뷰는 고급/중급 피험자에게 적절한 발화유도 기법이지만 초급 피험자에게 난이도 높은 과제로 평가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항을 파일명에 넣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어 구술 발화 자료 전사 지침을 응용하여 한국어 발음 오류 전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 ① 구술 발화는 대화 단위로 분절한다. 단위의 끝은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 한다.
- ② 조사자의 발화는 맞춤법에 따라 쓴다. 제보자의 발화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제보자가 띄어 읽는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띄어쓰기한다.
- ③ 제보자가 하나의 주제로 구술하는 내용 중간에 들어간 조사자의 말은 전사 하지 않는다. 또 수궁이나 제보자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는 경우, 제보자가 했던 말을 조사자가 확인의 목적으로 그대로 다시 따라하며 되묻거나 말하는 경우는 전사 하지 않았다.
- ④ 조사자의 발화 앞에는 @표를 하고 제보자의 발화 앞에는 #표를 한다. 오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보자마다 번호를 붙여 전사하였고, 발화마다 번호를 붙였다.
- ⑤ 제보자의 발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 }안에 표준어 대역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술 발화 전사 자료는 A4용지 총 80여장 정도의 분량이다. 전사 자료에는 억양이나 강세, 띄어 읽기와 같은 다른 음성적 정보를 표기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위 방법을 적용하여 전사하고 발음 오류를 조사, 분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3. 한국어 교육의 발음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 발화 조사가 가진 의의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은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에서의 오류, 특히 발음에서의 오류를 조사하기 위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발화 자료를 수집할 방법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하여 찾아낸 방식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 상태란 실은 질문지나 조사 항목과 같은 어떤 기

준이나 지침 없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수집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시간과 노력도 크게 필요하다. 이에 방언학에서 지역어를 조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 구술 발화 조사를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최대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는데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지역어 조사에서의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어 발음 오류 조사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해 본 결과 구술 발화 조사는 한국어 발음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인다. 또한 구술 발화만이 가진 장점과 의의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술 발화 조사에서는 첫째로,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면서도 조사자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 오류 수집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자연 발화로 조사 자료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혼자 또는 한국어 학습자끼리의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녹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대화하는 양쪽 모두가 학습자의 신분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의 부족으로 대화가 단절되거나 어색해질 수 있고, 대화의 주제나 내용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 구술 발화 조사는 조사자가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제2언어 사용자끼리의 자연 발화보다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풍부한 양의 자료를 산출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술 발화 조사를 하는 도중에 제보자의 발화 내용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면, 조사자가 조건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보도록 제보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보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그와 관련된 어휘를 몰라 발화가 어려운 경우, 제보자가 알고 있는 어휘 내에서 그것을 설명하면 조사자가 발화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어휘를 지원해주거나 새로운 단어를 알려 주기도 하면서 제보자에게 발화 방향을 제시하고 발화 양도 늘릴 수 있었다.

둘째로 구술 발화 조사를 통해 오류의 다양한 유형을 밝힐 수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한 종성 발음에서의 오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은 계획된 발음 연구나 낭독 형식의 조사에서 정해진 어휘나 단편적인 문장만 제시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실제 사용의 예를 수집할 수 있었고, 체언의 경우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사용될 때나 뒤에 오는 인접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의 여부에 따라, 용

언에서는 서로 다른 활용형이나 어미의 종류에 따라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비교·조사하기 유리하였다. 또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의 주제인 종성 발음 오류에만 구애받지 않고, 초성이나 모음에서의 발음 오류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제보 대상을 달리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뿐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다른 어느 국적의 제보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조사 방식이다. 그리고 발음 오류 이외의 잘못된 조사의 사용이나 용언 활용의 오류와 같은 문법적인 오류를 밝혀내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어 조사에서 특정 지역의 구술 발화 조사 자료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한국어 교육에서 구술 발화 조사 자료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의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모국 내에서의 방언권에 따른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은 제보자 전체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에 국한된 발음 오류를 살펴보는 데에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실제 학습 환경에서 전체적인 발음 오류가 많이 나타난 부분은 교사가 조금 더 강조하여 가르친다거나 발음 정보 제공 방식을 달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효과적으로 발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개인에게는 자신에게 주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적 발음 오류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일대일 교정과 맞춤 지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의 제보자도 조사자의 연구 참여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의 한계와 발음의 단점을 스스로 깨닫기도 했으며, 자신이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학습 방향을 잡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의 제보자의 수가 전체적인 오류 통계를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조사한 총 발화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으며, 제보자마다 발화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서 오류를 찾아내는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추후의 연구를 통해 구술 발화 조사 자료가 점점 쌓이면 의미 있는 통계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발음 오류의 양상

이번 조사로 확보한 구술 조사 자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말의 종성 발음에 나타나는 7개의 자음이 다양한 오류로 실현되었다. 자료에서 나타난 제보자들의 종성 발음 오류는 자음별로 나누어 각각 누락과 대치, 첨가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보다 더욱 다각도에서 오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배영환(2007)을 참고하여 발음 오류 환경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명사류 어휘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고 어휘 내 몇 번째 음절에서의 오류인지, 인접하는 다음 음절이 자음과 모음 중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조사와 함께 사용되었다면 그 조사의 초성이 자음인지 아니면 초성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용언에서는 종성 발음 오류가 어간에서 나타났는지 어미에서 나타난 오류인지를 따져보고, 후행인접음은 자음과 모음 중 어떤 것이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과의 비교도 병행해보았다. 제보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실현했던 누락은 유형을 크게 완전 누락과 부분 누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완전 누락’이란 종성으로 인해 인접음에 발생하는 음운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누락 상태를 뜻하고, ‘부분 누락’은 바로 뒤따르는 음절에 적용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은 지키면서 단순히 종성만 발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보자들을 통해 수집한 종성이 포함된 어휘는 총 1,158개로 그 중 종성/ㄱ/을 포함한 어휘는 14.7%, /ㄴ/이 23.5%, /ㄷ/이 4.4%, /ㄹ/이 18.3%, /ㅁ/이 10.4%, /ㅂ/이 5.7%, /ㅇ/이 22.9%로 종성 /ㄴ/을 포함한 어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ㅇ/, /ㄹ/, /ㄱ/, /ㅁ/, /ㅂ/, /ㄷ/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체언과 부사, 관형사가 총 917개, 가변성을 지닌 용언은 241개였는데, 종성이 포함된 어휘의 개수가 발화 시간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은 발음이 실현되는 경우만 추렸기 때문이다. 가령 발화 내용에서 나오는 어휘 중 체언에서 ‘밑’, ‘곳’과 같은 어휘는 인접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연음 현상으로 종성 발음이 실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용언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아름답다’, ‘쉽다’, ‘어렵다’, ‘걷다’, ‘묻다’와 같은 어휘의 경우

종성에 /ㅂ/또는 /ㄷ/발음이 들어있지만 어떤 활용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종성 발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든 어휘 외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와 달리 종성 발음이 실현되지 않는 단어가 상당 수 있었기 때문에 집계한 단어의 개수는 실제 발화에서 사용된 총 어휘의 양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1. 누락

이 연구에서 ‘누락’이란 실현해야 하는 종성 자음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오류로 보았다. 종성 발음 오류 중에서는 모든 제보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누락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소영,강현화(2018)에서는 언어권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에서 중국어권 학생들이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종성 발음에서 많은 오류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누락 오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ㄱ>ㄹ>ㄴ>ㅇ>ㄷ>ㅁ,ㅂ 순으로 받침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김태경·박초롱(2014)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ㄷ>ㄱ>ㄴ>ㅁ>ㄹ>ㅇ>ㅂ순으로 종성 누락 오류가 많이 나타남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위 연구와는 오류율이 높은 순서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제보자의 오류율과 제보자 개인의 오류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발음 오류 현상 중에서 명사류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어떤 자음이나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 누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용언의 경우 기본형이 같더라도 활용형에 따라 오류가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음절 구조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이은주·우인혜, 2013)

<표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

한국어		중국어	
음절구조	예	음절구조	예
V	아	V	—[yī]

GV	야	VV	五[wu]
없음		VVV	要[yao]
CV	가	CV	古[gu]
CGV	겨	CVV	考[kao]
없음		CVVV	鳥[niǎo]
VC	앞	VC	音[yīn]
GVC	역	VVC	元[yuan]
CVC	각	CVC	生[shēng]
CGVC	격	CVVC	見[jian]

한국어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의 구조이지만 중국의 음성구조는 ‘성모-운미’의 결합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음절을 대할 때 중성과 종성을 모국어의 운미와 동일시하여 하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의 중성과 종성이 각각의 떨어져있고 발음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인 학습자는 오류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말의 종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중국어의 운미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n], [ŋ]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우리말의 끝소리 발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구술 발화 자료에서 나타난 누락 오류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의 순서는 ㄷ(78.4%)>ㅂ(60.6%)>ㄱ(57.8%)>ㄹ(40.5%)>ㄴ(16.1%)>ㅇ(12.0%)>ㅁ(11.6%)로 상위 세 개의 종성/ㄷ/, /ㅂ/, /ㄱ/은 예상대로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성이면서 조음 방식이 같은 폐쇄음이었고, 그 다음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ㄹ/은 유음, 비교적 오류가 적게 나타난 나머지 /ㄴ/, /ㅁ/, /ㅇ/는 비음에 속하였다. 이에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폐쇄음 /ㄱ/, /ㄷ/, /ㅂ/과 유음 /ㄹ/ 그리고 비음 /ㄴ/, /ㅁ/, /ㅇ/로 나누어 누락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락 오류가 발생한 어휘는 크게 완전 누락과 부분 누락으로 분류해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완전 누락’이란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종성으로 인해 인접음에 발생하는 음운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누락 상태이고, ‘부분 누락’은 폐쇄음 종성 뒤에서 평음 /ㄱ/, /ㄷ/

/, /ㅂ/, /ㅅ/, /ㅈ/이 경음으로 바뀌는 경음화는 실현하면서 단순히 종성만 발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숙제[숙째]’를 ‘수째’로 발음하였다면 종성 /ㄱ/을 실현하지 않았지만 경음화는 실현하였으므로 이 제보자는 첫 번째 음절 말에 /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분 누락으로 보았다. 반면 제보자가 ‘수제’로 발음하였다면 종성 /ㄱ/을 완벽하게 없는 상태로 여긴 것이므로 완전 누락으로 보았다.

1.1. 종성 /ㄱ/, /ㄷ/, /ㅂ/에서의 누락 오류

구술 발화 전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성 발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순서는 역시 모국어 발음에는 없는 /ㄷ/, /ㅂ/, /ㄱ/의 폐쇄음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 종성 /ㄷ/은 명사류¹⁰⁾ 21개, 용언 30개 총 51개의 어휘 중에서 40개의 어휘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누락률을 보였고 /ㅂ/과 /ㄱ/이 각각 그 뒤를 이어 누락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종성에 폐쇄음이 오는 경우의 누락 양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목록의 어휘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체언과 부사, 관형사¹¹⁾ 등 형태가 변하지 않는 명사류와 가변성이 있는 용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중 2개 이상의 종성이 포함된 어휘는 각각 중복 표기하였고¹²⁾ 용언의 경우, 어휘에 종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음운 규칙에 의해 종성 발음이 실현되지 않거나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¹³⁾ 기본형이 아니라 활용한 어미를 그대로 살려 표기하였다.

1.1.1. 종성 /ㄱ/의 누락 양상

종성/ㄱ/발음이 포함된 전체 어휘 171개 중에서 누락 오류가 나타난 어휘는 총

10) 이 연구에서는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수사’등 문장에 사용 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휘를 명사류로 보았다.

11) 부사나 관형사는 모든 표 속의 어휘 끝에 *를 붙여 표기하였다.

12) 예를 들어 ‘한국’은 [항구]로 발음하여 /ㄱ/, /ㄴ/ 두 종성에서 모두 발음 오류가 나타났다.

13) 예를 들어 ‘먹다’는 활용하여 어미가 ‘는’이 되면 [멍는]으로 발음되고, ‘쉽다’는 ‘쉬운’으로 활용하면 어간에서 종성 발음이 실현되지 않게 된다.

98개로 누락률은 57.8%였다. /ㄱ/누락 오류가 발생한 어휘들을 명사류와 용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명사류의 범주에 든 어휘들을 <표 4>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외래어¹⁴⁾로 각각 분류하고 몇 번째 음절에서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았다.¹⁵⁾ 명사류 내에서의 /ㄱ/누락은 첫 번째 음절에서의 누락이 전체 누락의 41.6%, 두 번째 음절에서의 누락이 전체의 46.4%, 세 번째 음절에서 12%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1음절에서의 누락인 경우 연음 환경에서의 누락이 단 한 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어말이거나 후행인접음이 자음인 경우에 발생하였다. 2음절에서의 누락도 2건을 제외하면 모두 후행인접음이 자음이었을 때의 오류였다. 이 때 후행하는 자음의 종류는 /ㅅ/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ㅈ/이 9개, /ㄱ/이 7개, /ㅂ/이 6개, /ㄷ/이 2개, /ㅊ/, /ㅍ/, /ㅌ/이 각각 1개씩 있었다.

<표 4> 종성 /ㄱ/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ㄱ누락	1음절에서		2음절에서			3음절
	구{국}	또바로*	아지*	저녀{저녁}	미여꾸! 16)	
고유어	마{막}*	또가치*	쌌벼	부어{부엌}	호빠	미여꾸!
	꼬{꼭}*	떠뽀끼/ 터포키				잔치구쑤
	거짱/거정 {걱정}	나찌보끔				
	쑤떡{쑤떡}					
	유{육}	시땅	항구	생가	기수싸	전보쑤!
한자어	채{책}	하파/하과	공겨	장시	어하땅	유깨구!
	흐빠{흑백}!	소또{속도}	규치	계회	전보쑤!	오깨구
	채짱	트뽀	과모	흐빠{흑백}!	가겨	겨영하파

14) ‘불추제{불축제}’는 ‘고유어+한자어’의 조합이고 ‘고소빠쓰[고속버스]’는 ‘한자어+외래어’의 조합이지만 표 여건 상 각각 ‘한자어+고유어’와 ‘외래어’의 범주에 넣었음을 밝힌다.

15) 만약 음절별로 누락이 여러 건 있다면 어휘 끝에 ‘!’를 붙이고 중복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전보쑤{전복죽}!’에서는 2음절과 3음절에서 각각 누락이 실현된 것이다.

	하뻘	하꼬	외시	중구	얼로흥 보하과	해수요짱
	지찌/지찹	시싸	게소 {계속}*	음시	성껴	관광개뜨 리{관광 객들이}
	채빵	하쌍	기어	지여	천구배 구시	
	배쌈시오	매쭈{맥주}	세타썰	국찌	함더	
	유씨{육십}	배이십	대하이파 시험	항구인		
	유처년	유향년				
	채쌍	수썰				
	호씨*	유깨구!				
한자어 + 고유어			불추썰			운동보 까계
	새갈	화시리*	외구 사람들	초로썰!	중구싸 람	초로썰!
외래어	제스키스	태씨	고소빠쓰	컴배		

/ㄱ/누락 오류가 첫 번째 음절에서 일어난 경우 부분 누락은 1음절 전체 누락의 77.1%였고 1음절이면서 어말인 경우는 14.2%였다. 두 번째 음절에서의 부분 누락은 전체의 30.7%, 어말인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음절에서 누락이 실현된 예에서 어말인 경우에 60%, 부분 누락은 40%였다. 전체 누락에서 완전 누락에 비해 부분 누락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제보자들이 종성/ㄱ/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으나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렇게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말에서 종성 /ㄱ/을 발음하지 못

16) '미여꾸'는 2음절과 3음절에서 각각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각각 중복 표기하였고, 끝부분에 '!'를 넣었다.

하였다.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0)에서처럼 ‘국찌{국적}’, ‘흐빠{흑백}’, ‘쑤떡{쑤떡}’, ‘초로쌌{초록색}’, ‘전보쑤{전복죽}’, ‘미여꾸{미역국}’처럼 앞뒤 음절의 종성이 모두 /ㄱ/인 경우에 하나만 발음하거나 둘 다 발음하지 못하였다. 앞의 음절 종성이 /ㄱ/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 바로 뒤 자음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여기서 각각의 오류 어휘가 포함된 문장 앞에 붙여진 숫자 번호는 전사 자료에 붙인 대화의 일련번호이다. 같은 일련번호 내에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오류가 들어있는 문장만 기재하였음을 알려준다.

(10) 223. #1 쑤떡, 쑤떡 제일 조아쑤요.

4. #2 국찌 아니면 하짜?

228. #4 새깔 인는 신문지가 아니고 그냥 흐빠, 흐빠신문지 보고.

104. #5 상이는 노란쌌, 치마는 초로쌌, 한보 너무 화려해요.

178. #5 이쑤요, 파전, 미여꾸, 전보쑤, 그리고 비빔밥.

‘또바로{똑바로}’, ‘또가치{똑같이}’, ‘화시리{확실히}’ 등의 부사는 두 번째 음절에서 경음화 없이 전부 완전 누락이 실현되었다.

(11)의 ‘항구인{한국인}’과 ‘배이십{백이십}’¹⁷⁾은 각각 종성에 /ㄱ/이 들어가지만 연음이 실현되면 [한구긴]과 [배기십]으로 종성/ㄱ/발음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표기에서는 드러난 /ㄱ/을 아예 발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누락 어휘 목록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유항년{육학년}’은 표준발음이 [유강년]이다. 이 역시 ‘ㄱ + ㅎ’이 ‘ㅋ’으로 소리나는 음운 축약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11) 72. #1 대하교를 이파하기 위해서 항구거를 항구인처엄 공부하고 시퍼요.

166. #2 네, 배이십 제곰미터의 이쑤서 제 생가게는 쑤 큰 퍼니예요.

10. #4 처음 항구 와쑤 때 제가 초등학교 유항년때 이천 팔년.

17) 연음 환경에서의 누락인 경우 표 안에 배경색을 설정하여 표기하였다.

합성어인 경우 완전 누락이 실현된 ‘천구배구시{천구백구십}’, ‘대하이파시힘{대학 입학시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분 누락이었다.

윤영해(2016)에서는 중국어 학습자들은 단자음 종성에서는 물론이고 연음에서도 폐쇄음을 발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2)처럼 뒤에 오는 인접음이 모음일 때 /ㄱ/뿐만 아니라 /ㄴ/, /ㄹ/, /ㅇ/, /ㅂ/의 종성에서도 연음을 대부분 자연스럽게 발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수준이 중급이상인 되기까지 연음에 자주 노출되었고, 발음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2) 157. #1 저 매일 일고씨? 일고씨 바네 이러나고 세수하고 그리고 요즈메 나는 목끼 아파서 좀 시매져서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민간 방버를 가르쳐서 이런 좀 이상하는 동자글 하고 (웃음) 그리고 퍼니저메서 아치믈 사서 머겨요. 머고 나서 가바늘 가지고 바로 교시레 와요.

204. #2 텔레비저는 예저네 우리 마니 봐찌만 이제는 해느포니이써서 컴퓨터도 이써서 별로 마니 보지 아나요. 그리고 요즈메 쥁구게 나오는 드라마 프로그램 가튼거 아주 재미업써요. 그래서 요즘 쥁구사라문 드라마 보고 시프면 보통 핸드포네서 봐요. 우리 지베서도 텔레비전 사용하지 아나요.

특이사항으로 ‘자년{작년}’, ‘항구말{한국말}’, ‘구거궁문{국어국문}’, ‘도릭썩{독립성}’과 같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에서의 누락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음운 규칙으로 인하여 [장년], [한국말], [구거궁문], [동납썩]과 같이 종성/ㄱ/이 /ㅇ/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뒷부분의 /ㅇ/누락의 범주에 넣어 집계하였다.

(13) 16. #1 지베 도라갈때마다 그 부모니는 지썩 차타고 데이고 지베 가요.

173. #1 그리고 항구게 그거 지썩 병원에 가서 사지늘 썩꼬.

(13)에서 보면 같은 어휘인 ‘직접’에서 ‘16.지찌’의 경우에 /ㄱ/과/ㅂ/ 모두 누락 오류가 나타나는데 반해 ‘173.지찹’의 경우에는 /ㄱ/만 누락 오류가 나타난다. 이는 후행하는 인접자음의 조음위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발화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어 좀 더 많은 양의 발화를 조사한다면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두 예가 동일한 제보자에게서 나타난 누락 현상으로 이 제보자는 어휘 내 종성에 /ㅂ/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에서와 같이 ‘어학당’, ‘학생’, ‘학교’, ‘책상’, ‘중국’, ‘한국’ 등 /ㄱ/누락을 보인 어휘 중에 상당수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었는데도,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역시 폐쇄음 종성 발음이 없는 모국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14) 112. #1 침대와 채쌌은 아, 채쌌은 제일 동쫌게 이써요.
 151. #1 중구친구.. 어하땅 중구친구하고 몽골친구도 가치 마니 해요.
 2. #5 지금 제주대하교 항구거하땅에서 항구거를 공부하고 이씀니다.
 18. #2 아, 우리 꼬등하교.. 꼬등하교 사물실에 성생니랑 총주에 하교에 선생님 협찬 해서서 우리 하교에 하쌩 추어나고 거기에 가써요.
 72. #2 시땅, 시땅하교 .. 다양한 칭물. 찜물.
 204. #2 요즘 중구사라문 드라마 보고시프면 보통 핸드포네서 봐요.

외래어에서도 /ㄱ/누락 오류가 실현되었다는 것도 밝힌다. 고유어나 한자어에서와 같이 외래어에서도 이번에 나타난 /ㄱ/누락뿐만 아니라 다른 종성에서의 누락 오류가 여러 개 발견되었다.

- (15) 100. #4 방타소년다는 일년에 두 번 세 번 컴배해서 너무 힘드려요.
 156, #2 거기에서 내리고 택씨를 타고 우리지베서 도차칼 쑈 이써요.
 106. #4 왜냐하면 그 엔날 무한도전할 때 엔날 가수드 모아서 콘서트 해짜나요. 엔날 아이돌드리..에이치오티, 제쓰키쓰.

<표 5> ‘체언+조사’ 환경에서 /ㄱ/누락 오류

ㄱ누락	연음 환경에서 완전 누락		부분 누락
체언+조사	오른쫘와	오른쫘에서	유끄까지
	간신라든가	전보는{전복은}	지까또
	민바는{민바근}	자시는{장식은}	
	건추는	노란새하고	
	저녀는	추서나레도	
	벼는{벽은}	그늬이	
	한보를	가겨는	
체언+용언			떠싸고

‘체언+조사’ 환경에서 /ㄱ/누락이 실현되는 경우를 완전 누락과 부분 누락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만나는 연음 환경에서의 누락 오류율이 76.5%나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사의 대치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원래 사용해야 하는 조사 ‘과’, ‘은’, ‘을’을 앞 음절의 종성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조사 ‘와’, ‘는’, ‘를’로 대치하였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에서 ‘체언+조사’에서의 조사 대치의 오류가 거의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앞 음절의 종성을 없다고 여겨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16)에서의 ‘모는{목은}’, ‘전보는{전복은}’, ‘민바는{민박은}’, ‘건추는{건축은}’, ‘자시는{장식은}’, ‘벼는{벽은}’에 대해서는, 이 발음 오류를 /ㄱ/누락으로 봐야할지 /ㄱ/을 /ㄴ/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것으로 봐야할지 고민을 하였는데, 이 발음 오류를 보인 제보자들이 종성이 /ㄱ/이고 후행하는 인접음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다른 종성에서의 연음에 비해 잘 발음하지 못했던 사례들로 보아 이 연구에서는 /ㄱ/을 누락하고 조사를 ‘는’으로 대치한 완전 누락 오류로 보았다.

(16) 173. #1 지점 병원에 가서 사지를 찌꼬 여기 모는 쪽 스따고 이러케.

176. #2 근데 그 민바는, 민바근 그 위치 어려께 차자서.
 102. #5 한보를 입꼬 드러가면 무료해써요.
 241. #2 제가 쫙구게 건추는 너무 조아해서.
 184. #5 전보는.. 전보 고기가 빠고 내장이짜나요.
 218. #4 음, 그 유리창는.. 벼는 가짜는 벼기에요.

(16)에서 '176.민바는{민박은}'은 다음에 '민바근{민박은}'으로 수정하여 발음한 것으로 보아 종성에 /ㄱ/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발음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18.벼는'도 '벼기에요{벽이에요}'로 마찬가지로이다. 이 오류를 보인 제보자의 경우에도 연음의 실현 빈도로 보아 받침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나타난 종성 /ㄱ/의 누락 양상은 후행하는 인접음이 모두 자음이거나 어말인 경우였다. 또 같은 어휘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우리말의 음운 체계 이해 부족과 동시에 유창성의 문제로도 생각된다.

- (17) 32. #4 그 교수님 진자 대दान 교수니미예요. 중구거 일보너 영어 도길어 다 아라요. 오깨구 유깨구 다 할 줄 아라요.
 72. #1 대하표를 이파하끼 위해서 항구거를 항구인처엄 공부하고 시퍼요.
 36. #4 네 이써요. 며치저네 한 명 새로운 친구 사귀언는데 그부는 항구사 라합니다. 우리 가치 중구신화라는 수업 듣는데 제 압짜리에 안잔는데 제가 먼저 말 거러써요.

또 (17)에서처럼 제보자들은 대부분 '오깨구{오개국}', '유깨구{육개국}', '항구{한국}', '중구{중국}'와 같이 나라를 의미하는 '국(國)'에서의 종성발음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모국어에서의 같은 글자의 발음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보인다. 중국어 발음에 '국'이 [guó]로 소리 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뒷부분에 언급할 /ㅂ/ 누락에서의 숫자 발음 오류에서도 나타나는 모국어의 간접 현상일 것이다.

<표 6> 용언 어간에서의 /ㄱ/누락

완전 누락		부분 누락
축약 환경	비연음 환경	비연음 환경
선택하고	머고나서	잔찌
세탁하고	찌고	머찌
이파하기		머꼬
시작해볼까		찌꼬
생각해써요		익쑤해써요
도착해써요		트뽀한/트뽀란
시작해요		보짜파지/보짜패요
약쑤했는데		

<표 6>과 같이 용언의 어간에서의 누락을 다시 완전 누락과 부분 누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는 종성 발음을 완전히 누락하면서 ‘ㄱ+ㅎ’이 ‘ㅋ’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도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18)‘선택하고{선택하고}’, ‘세탁하고{세탁하고}’, ‘시작해요{시작해요}’ 등의 어휘에서 자음축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반해 ‘이파하기{입학하기}’, ‘보짜파지{복잡하지}’에서처럼 ‘ㅂ+ㅎ’을 ‘ㅍ’으로 발음하는 축약은 실현하였다.

- (18) 116. #1 창문 바케 그거 오슬 세탁하고 노는 고 이써요.
 74. #1 제가 어너늘 관시미 이써서 어너늘 관계인은 전고를 선택하고 시퍼요.
 92. #6 고등하교때 친구드리 이께임 조타고 마래써요. 그..가치 시작해요.
 72. #1 대하교를 이파하기 위해서 향구거를 향구인처엄 공부하고 시퍼요.
 112. #5 부사는 바다가 이써서 서우보다 그러케 보짜파지 아나써요.
 230. #3 이시보일 가조뜨리 또 오빠한테 추카해요. 그러다구요.

243. #2 그때는 경험도 싸고 중구게 다시 이을 차즈면 더 시을 가타서.

그리고 이 부분은 종성에서의 논의와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자료 분석 중에 /ㄱ/자음 축약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것과 반대의 상황에서 (18)‘그러다구요{그렇다구요}’, ‘싸고{쌓고}’와 같이 ‘ㅎ+ㄱ’이 ‘ㅋ’으로 소리나는 경우도 축약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종성/ㄱ/의 발음을 교육할 때, 경음화 규칙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잦은 누락과 자음 축약 규칙에 대해 주의를 주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1.2. 종성 /ㄷ/의 누락 양상

/ㄷ/은 7개의 종성 발음 중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보자들의 구술 발화 속에서의 종성에 /ㄷ/발음이 포함된 어휘양은 총 합계 51개로 많지 않았으나 그 중 40개에서 누락 오류가 나타나 오류율이 78.4%에 달했다. 오류 어휘를 역시 명사류와 용언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7> 종성/ㄷ/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ㄷ누락	1음절			2음절
	고유어	고{곳}	나짬	해뻐{햇빛}!
오{옷}		오짱	오까게	다서
며뻐		드끼{듣기}	마짱{맛집}	돌소비빔빠
고유어+한자어	처뻐재			여서뻐

/ㄷ/ 종성 발음 누락이 실현된 명사류는 총 13개로 나타났다. 이를 누락이 나타난 음절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자어나 외래어에서의 오류 어휘는 발견되지 않았다. ‘드끼{듣기}’와 ‘다서{다섯}’

를 빼고는 모두 합성어였으며 전체 누락 중 음절 말에서의 누락은 28.6%였고, 바로 뒤에 오는 초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부분 누락은 71.4%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은 종성이 /ㄷ/인 경우에도 앞서 /ㄱ/에서와 같이 머릿속에 받침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19) 177. #1 빨리 나꼬 시퍼요.

22. #1 지꼬 조여.

343. #1 그리고 제일 hinder때 이쭈이레 다선, 오일또안 이래써요.

34. #2 네, 바로 그 비행기표도 싸고 시간도 느찌 아나요

168. #2 채쌍. 그리고 친대 오짱 근데 그 오짱은 그 안에 오는 제 아니고 아버지에 오, 제 오는 우리 부모니네 방에 이써요.

112. #5 흐러써요. 해뻘 업써서 바다 가고시픈데 풍경 조치 아나써요.

190. #5 네 돌소비빔빠, 엔나레 그 알바해뻘 시땅에 돌소비빔빠비써요. 전 보해초돌소비빔빠, 마시써요.

종성 /ㄷ/은 중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받침은 (19)에서와 같이 /ㄷ/, /ㅅ/, /ㅈ/, /ㅌ/으로 다양하였다. 체언에서는 /ㅅ/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자음은 각각 1개의 어휘에서 누락 오류가 발견되었다. 학습자들이 중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8>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ㄷ/누락 오류

ㄷ누락	완전 누락	부분 누락
체언+조사	오는{웃은}	꺼또{것도}
	라 <u>케</u> 하고	

‘체언+조사’의 범주에서는 누락된 받침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는 어휘들이었고 뒤에 오는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은’, ‘하고’인 경우 연음이 실현되지 않는 완전 누락이었으며 후행음절에서 초성이 ‘도’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났다. 앞서

살펴본 /ㄱ/누락의 용언에서의 예와 같이 앞 음절의 받침의 유무에 따른 조사의 대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힌다. 또 음운의 축약 역시 실현하지 못하였다.

중국어에서 발음이 없으므로 발음 시 누락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리라고 예상은 하였으나 용언에서의 종성 /ㄷ/의 경우는 거의 발음이 실현되지 않았을 정도로 누락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용언은 받침의 양상에 따라 누락 오류를 분류해 보았는데 /ㅍ/이 받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9> 종성 /ㄷ/누락 오류가 발생한 용언

ㄷ누락	ㅍ		ㅅ	ㅈ	ㄷ	ㅊ
용언	가까워꼬	몰라꼬	지꼬{짓꼬}	마찌{맞지}	드꼬{듣꼬}	나썸{낫썸}
	사라꼬	바꼬{봤꼬}	잘모해써	느찌{늦지}	바지{받지}	
	이께써요	머시따	씨꼬{씻꼬}			
	바꿔꼬	재미꼬	부꼬{붓꼬}			
	이꼬{있꼬}	해짜나요	모뻘서			
	이썸니다	이짜나요				
	마시찌만	와썸니다				

(20)‘잘모해써{잘못했어}’는 /ㅅ/의 받침이 중화되어 /ㄷ/으로 발음되고 바로 뒤에 오는 초성 /ㅎ/과 만나 자음 축약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바로 뒤의 초성 /ㅎ/이 그대로 발음되어 /ㄷ/의 누락으로 간주하였다. 용언에서의 /ㄷ/누락은 ‘바지{받지}’ 하나를 제외한 95.8%가 부분 누락이었다. 후행 인접 자음에서 경음화는 실현하면서 /ㄷ/받침만 누락하여 발음한 것이다. 역시 종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종성 /ㄷ/의 누락에 있어서 한국인의 발음실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인에게서도 /ㅍ/받침 뒤에 자음이 연속해서 오는 경우 /ㄷ/발음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발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발음의 누락을 분석하였지만, 발음 오류를 조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의문을 가져 본다.

- (20) 50. 어, 제가 자모해씨. 거노사, 의사, 거노사
 132. #4 아니요, 저 방 며뻔 바꿔써요. 저 쳐뻔 룸메이트는 친구랑 가치
 사고 시퍼서 나가써요. 지금 방 바꿔꼬 루메이트도 바꿔써요.
 272. #3 그리고 마신는 거또 마나요.

종성 /ㄷ/은 모국어에 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화나 자음 축약 같은 복잡한 음운 규칙을 발음에 적용하여 실현해야 해서 오류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성 발음 교육 시 /ㄷ/발음과 관련된 정확한 음운 규칙을 숙지시키고 다양한 예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1.1.3. 종성 /ㅂ/의 누락 양상

7개 종성 중 두 번째로 많은 60.6%의 누락 오류를 보인 /ㅂ/에서는 숫자 ‘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0> 종성 /ㅂ/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ㅂ누락	1음절	2음절			3음절
고유어	그{급}	빵지			보끔빠
	지{집}	깁니{깁읻}			(돌소)비빔빔
	바{밥}				
한자어	시오일	이시오일	방버	산그	
	시팔	(배)쌈시오 ¹⁸⁾	편지{편집}	구시구년	
	시년	사시오	칠시	이시총	

		오그빤	산시뽀	자스썰	
		(천구배)구신구	이시사일	사시	
		면저시험	지썰	이시육	
		칠씨이명	수처		
고유어+ 한자어		일고씨			전기바쑈 ¹⁹⁾
외래어	리스트	유러{유럽}			

<표 10>에서처럼 /ㅂ/종성을 가진 명사류에서 38.2%의 누락은 어말에서 실현되었고, 절반에 가까운 44.1%의 누락이 숫자 ‘십’을 발음하지 않아 나타났다. 제보자들이 체언 내에서 연음을 비교적 잘 발음한데 비해 (21)‘시오일{십오일}’, ‘사시오{사십오}’, ‘이시오일{이십오일}’, ‘이시육{이십육}’, ‘배쌈시오{백삼십오}’, 칠씨이{칠십이}와 같이 숫자 ‘십’이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종성 /ㅂ/ 발음 바로 뒤에 모음이 오는 환경이었음에도 연음을 전혀 실현하지 않았다. 다른 어휘는 모음 앞에서의 /ㅂ/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십’의 경우는 예외였고, 다른 어휘에서 후행하는 인접자음에 경음화가 실현된 반면 ‘십’의 뒤에서는 경음화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성/ㅂ/의 존재를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에서 숫자 ‘십(十)’을 나타내는 발음이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이 비슷한 [shí]로 발음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시년{십년}’과 ‘이시육{이십육}’은 뒤따르는 음절에 따라 종성/ㅂ/을 [심년], [이심륙]과 같이 /ㅁ/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숫자 ‘십’에서의 종성/ㅂ/을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로 보았기 때문에 /ㅂ/누락의 예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21) 16. #6 아.. 사시퍼센트.

18) ‘배쌈시오’와 같은 합성어 중에서는 몇 번째 음절에서의 누락인지를 살필 때 누락 오류가 나타난 앞뒤 음절만을 고려하고,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앞부분의 형태소 부분은 음절 수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앞부분의 형태소에 ()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19) ‘한자어+고유어’의 유형이지만 표 구성 상 ‘고유어+한자어’에 함께 포함하였다.

276. #6 칠씨..이명.
32. #1 사시츄 정도, 제가 사고인데 지금 이시육츄이예요. 이시육츄에.
158. #2 우리 지븐.. 싸츄. 천구배구시구녀네 만드러서 약간 쫘 늘거서..
224. #4 엔나 어머니가 사시오키로 지금 아마 유씨키로 유씨오키로 정도.
88. #6 하사람 여러.. 배쌌시오 께임 사람 선택하쑤 이쑤요. 여러 가지.

모국어에서의 발음 영향 때문에 누락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난 만큼 숫자의 발음에서도 중국어와 한국어에서의 발음이 다름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발음에 특히 유의하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 (22) 82. #2 그 다음에 립스틱. 업쑤요.
337. #4 말타나는 자근 섬 가고시퍼요. 유러퍼네 이쑤요.

(22)의 ‘유럽’, ‘립스틱’과 같은 외래어에서도 누락오류가 나타났다. 하신영(201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외래어 발음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도 어려워하는 초성에서의 평음, 격음, 경음의 구분을 외래어에서도 잘 하지 못한다고 논하였고, 이중 모음의 경우에도 발음상의 오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초성과 중성에 초점을 두고 한 연구여서 중성 발음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외국어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우리말 외래어의 발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체언+조사’ 환경에서는 (23)‘방버를{방법을}’처럼 연음에서 중성 누락과 조사 대치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수어끈나고{수업끝나고}’와 같이 ‘체언+용언’의 환경에서도 부분 누락이 나타났다. 제보자들은 중성/ㅂ/도 존재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발음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이해된다.

- (23) 157. #1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민간 방버를 가르쳐서 이런 쫘 이상하는 동자글 하고..
130. #5 수어끈나고 밤머꼬 바로 지베 가고 쉬어따가 알바하러 가야돼요.

다음의 <표 11>는 용언에서 찾아낸 제보자들의 종성/ㅂ/ 누락 오류의 예이다.

<표 11> 용언에서의 /ㅂ/누락 오류

ㅂ누락	완전 누락		부분 누락
	비연음 환경	축약 환경	비연음 환경
용언에서	하고 <u>ㅅ</u> 지{하고 <u>ㅅ</u> 지}	연 <u>ㅅ</u> 해 <u>ㅅ</u> 세요	어 <u>ㅅ</u> 려 <u>ㅅ</u> 께
	하고 <u>ㅅ</u> ㅂ <u>ㅅ</u> 꼬	조 <u>ㅅ</u> 려 <u>ㅅ</u> 한{졸 <u>ㅅ</u> 업 <u>ㅅ</u> 한}	아 <u>ㅅ</u> 름 <u>ㅅ</u> 다 <u>ㅅ</u> 꼬
			가 <u>ㅅ</u> 라 <u>ㅅ</u> 인 <u>ㅅ</u> 꼬
			미 <u>ㅅ</u> 께{미 <u>ㅅ</u> 께}

(24)의 ‘연ㅅ해ㅅ세요{연ㅅ습ㅅ했ㅅ어요}’ ‘조ㅅ려ㅅ한{졸ㅅ업ㅅ한}’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성/ㅂ/에 이어서 발음되는 다음 음절의 초성이 /ㅎ/인 경우에 /ㅂ/으로의 음운 축약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 (24) 48. #4 우리 아ㅅ지 경ㅅ기 해ㅅ본ㅅ저ㅅ기 업ㅅ써ㅅ서 우리 그ㅅ냥 이ㅅ러ㅅ께 연ㅅ해ㅅ써ㅅ요.
 255. #4 하ㅅ지만 나ㅅ주ㅅ에 조ㅅ려ㅅ한ㅅ후ㅅ에 아ㅅ마 도ㅅ우ㅅ미 되ㅅ 쑈ㅅ 인ㅅ는 거 가ㅅ타ㅅ요.
 176. #2 근ㅅ데 그 민ㅅ바ㅅ는, 민ㅅ바ㅅ군 그 위ㅅ치 어ㅅ려ㅅ께 차ㅅ자ㅅ서.

두 번째 제보자는 ‘차ㅅ갑ㅅ께’나 ‘두ㅅ껍ㅅ께’는 종성 /ㅂ/발음을 실현하면서 (24)의 ‘어ㅅ려ㅅ께’는 발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성 발음/ㅂ/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빠르게 발음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 누락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 보인다.

(25)의 ‘하ㅅ고ㅅ지’, ‘하ㅅ고ㅅㅂㅅ꼬’와 같이 /ㅂ/받침에서 중화가 일어나는 어휘에서의 누락 오류 예도 있었다.

- (25) 257. #2 그ㅅ대는 하ㅅ고ㅅ지ㅅ 아ㅅ난ㅅ데 그ㅅ래ㅅ도 차ㅅ마ㅅ써ㅅ요.
 319. #1 먼ㅅ저 그 항ㅅ구ㅅ께 서ㅅ우ㅅ리ㅅ나 부ㅅ산ㅅ가ㅅ튼 큰 도ㅅ시ㅅ부ㅅ터 여ㅅ해ㅅ하ㅅ고ㅅㅂㅅ꼬.

하지만 용언 환경에서도 중화나 음운 축약을 실현하지 못한 예를 제외하면 연음 환경에서 오류는 전혀 없었고 나머지 50%는 비연음 환경에서의 부분 누락이므로 명사류에서와 같이 종성/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국어인 중국어에 없는 발음인데다가 폐쇄음은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불파음으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변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서 많은 오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 중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접한 편인 제보자도 종성에서 /ㄱ/, /ㄴ/, /ㄷ/ 발음을 실현시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후행인접음에서 경음화를 실현하는 부분 누락 오류율이 높았고, 연음에서 발음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폐쇄음 종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아예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발음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폐쇄음 종성의 발음 연습과 교정이 필요하고, 연음이나 경음화 실현에 비해 음운 축약은 잘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음운 규칙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보아야겠다.

1.2. 종성 /ㄹ/에서의 누락 오류

종성/ㄹ/은 전체 212개 어휘 중에서 86건의 오류가 발견되어 누락 오류율 40.5%였고, 폐쇄음 /ㄷ/, /ㄱ/, /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누락오류를 보였다.

신호철(2003)에서는 우리말에서 유음/ㄹ/의 발음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종성이 /ㄹ/이고 바로 다음 음절이 모음인 경우 탄설음을 설측음으로 바꿔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리{아이들이}’, ‘낱말른{낱말은}’, ‘물러씹니다{물었습시다}’, ‘말리{말이}’의 식이다. 반면 종성이 /ㄹ/이고 다음 음절의 초성이 ㄹ을 제외한 자음인 경우나 어말에 /ㄹ/이 오는 경우에는 한국어의 받침 /ㄹ/이 설측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발음한다고 보았다. 또 백경미·김태경(2014)에서는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제외하면 /ㄹ/을 대체로 잘 발음하였으며, 후행하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 유음/ㄹ/의 탈락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국

어에서는 종성/ㄹ/이 연음되면 탄설음[r]으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표준 중국어에는 설첨음[l]과 권설음[ɺ]만이 존재하고 탄설음[r]이 없으므로 이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오류의 예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폐쇄음 종성들과는 달리 유음 종성/ㄹ/은 자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음 앞에서의 누락 오류도 전체 오류의 9.3%를 차지하여 다른 종성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음 앞보다는 음절 말에서의 누락 오류가 41.3% 자음 앞에서의 누락 오류가 47.8%로 훨씬 우세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표 12> 종성 /ㄹ/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ㄹ누락	1음절		2음절		3음절
	고유어	빠리*	빠리빠리*	한다{한달}	엔나
빠래		하머니	네싸	신바	
서거지			과이	며치	
주거리		하아버지	달빠{달밭}		
한자어	파만	치월	이리{일일}	침시	그묘이
	이쭈이 {일주일!}	파월	구워	건무	이인시 {이인실}
	겨짚	이뿐{일본}	십치또 {십칠도}	제이*	이쭈이 {일주일!}
	추발	이급{일급}	십파층	우우짚 {우울증}	
	이판*	치문{질문}	분지{분질}	매이매이	
	이뿐{일본}		거시	사머{삼월}	
한자어+ 고유어	소찌키 {솔직히}*}	여심히/여씨미 {열심히}*}	서우역 ²⁰⁾		가수드 {가수들}

외래어	텔레비전	미크커피			시리어
	크럽{클럽}				

종성/ㄹ/을 발음하지 않은 어휘 중 가변성이 없는 명사류를 <표 12>에 정리하였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부분이었지만 ‘시리어{시리얼}’, ‘텔레비전{텔레비전}’, ‘미크커피{밀크커피}’, ‘크럽{클럽}’ 등의 외래어에서도 종성의 누락이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특징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자면 두 음절 중 앞의 음절 말이 /ㄹ/인 경우 중에서 ‘이뿐{일뿐}’, ‘치월{칠월}’, ‘파만{필만}’, ‘파월{팔월}’, ‘이급{일급}’, ‘이리{일일}’로 숫자를 나타내는 어휘에서의 /ㄹ/종성 발음 누락이 압도적이다. 이는 역시 모국어에서 숫자의 발음이 영향을 끼쳐 나타난 현상인 듯 보인다. 앞서 종성 /ㄴ/의 누락에서 살펴본 ‘십’에서와 같이 우리말의 숫자 발음과 중국어의 숫자 발음이 1(一[yī]), 7(七[qī]), 8(八[bā])처럼 초성이 유사한 경우 중국어에서의 발음대로 종성을 누락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6)을 보면 같은 숫자 ‘팔’의 발음을 바로 뒤의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앞의 경우에는 ‘파월{팔월}’로 연음을 실현하고, 뒤의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ㄹ/을 누락한 채 발음한 것으로 보아 ‘팔’이라는 음절에 종성 /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숫자 발음에서의 종성 누락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의와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26) 254. #3 네, 치월 파월.

260. #3 네, 사람 마나요. 아마 오만 명. 빼이징에 콘서트 파만 명 이상.

(27)의 ‘추발’과 (26)‘치월’, ‘파월’ 같이 ㄹ종성이 연속해서 있는 경우나 (27)‘빠래{빨래}’ ‘빠리{빨리}’ ‘서우역{서울역}’ ‘텔레비전{텔레비전}’처럼 종성/ㄹ/바로 다음

20) ‘고유어+한자어’의 조합이지만 표 여건 상 이 범주에 포함하였음을 일러둔다. 또한 앞의 각주 16)에서 밝혔듯이 연음 환경에서의 종성 누락은 배경색을 적용하였다.

에 /ㄹ/초성이 연속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누락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말 초성/ㄹ/에서의 탄설음 발음이 어려워 종성에서의 설측음과 초성에서의 탄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거나 아예 둘 다 발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27) 12. #1 인천공양에서 추발해요.
 74. #5 그때 나는 서우역, 서우역 근처에 호테는 서우역 근처에 이씨요.
 85. #3 손으로 빠래 하거나 세타실에서 빠래 해요.
 128. #3 장거 나온 후에 팬들이 빠리 지베 가라고 해씨요.
 188. #3 컴퓨터도 이씨요. 거실. 테레비전 소파, 그리고 모든 물건 이씨요.

그 외 나머지 오류는 (28)‘신바{신발}’, ‘거시{거실}’, ‘서거지{설거지}’ 등 음절 말이나 자음 연쇄 환경에서의 누락이었다. ‘겨짚{결정}’, ‘이딴{일단}’, ‘소씨키{솔직히}’, ‘여씨미{열심히}’, ‘우우짱{우울증}’에서는 종성 /ㄹ/을 누락하더라도 후행인접 자음에서 경음화를 실현하였다.

- (28) 38. #1 그리고 음 지 무는 바께 신바 버서 바케서 노코 그리고 밤명은 오른 쪼게 거시, 거시 이씨요. 그리고 아 텔레비전 그리고 과이라던가.
 124. #6 서거지 가튼거 다 할꺼예요.
 64. #5 네 서울, 서우는 네 번 가따와씨요.
 110. #4 화장품, 가방, 그리고 신발, 신발도 많이 사씨요. 항구게 신바는 중구보다 가겨기 더 싸요. 항구게 신바르 가겨근 중구게 가겨는 반.
 58. #4 우돈 이딴 제주후문인은 빠쓰정유장에서 빠쓰타꼬 우도 그쪽 가는데 하지만 직쩍 가 쑈 업씨요.
 88. #4 인는데 저는 중구 프로그램 별로 안봐요. 항구 프로그램 중구 프로그램보다 소씨키 마라면 재미이씨요.

(28)‘서울’의 발음에서 /ㄹ/은 음절 말일 때는 종성을 발음하였지만 ‘서우는{서울은}’, ‘서우역{서울역}’처럼 뒤에 조사나 다른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누락하였으므로 종성 /ㄹ/의 누락 오류에 포함하였다. 이는 ‘신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바는{신발은}’에서는 누락한 종성 /ㄹ/을 앞의 ‘신발’, ‘신발도’에서는 누락하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보자들은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운 규칙에 집중하거나 빠르게 발화하면서 종성의 존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 쉽게 누락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체언+조사’의 환경에서 발생한 누락 오류를 살펴보면 <표 13>에서처럼 /ㄹ/을 누락하고 다음에 오는 조사가 주격조사 ‘은/는’인 경우 앞 음절의 종성 발음을 누락했을 때 그 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는’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3>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ㄹ/누락 오류

ㄹ누락	체언 부분에서 누락		조사에서 누락
	연음 환경	비연음 환경	비연음 환경
체언+조사	겨우에야	푼지도{품질도}	야끄
	겨우이자나요 {겨울이잖아요}	삼머따부터	오스{옷을}
	반댄만는		추므{춤을}
	호테는		
	신박는		

(29) ‘겨우에야{겨울에야}’, ‘겨우이자나요{겨울이잖아요}’와 같이 후행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연음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도 35.7%나 나타났지만 자음 앞에서의 누락이 42.8%로 더 많았고, ‘야끄{약을}’, ‘오스{옷을}’, ‘추므{춤을}’과 같이 목적격조사 ‘을’에서의 종성 /ㄹ/을 누락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29) 189. #1 이쭈이레 사밀만 그 이래요.
- 150. #2 근데 이제 겨우이자나요.
- 134. #2 우리 야끄 머그때 그 마시 어때요?

120. #3 추르 추때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사람이 친저라고 자개요.

또 아래의 <표 14>의 종성 /ㄹ/이 발음되지 못한 용언의 예에서는 앞서 살핀 체언에서처럼 (30)‘비리고{빌리고}’, ‘빠라서{빨라서}’ ‘노러{놀러}’ 등 종성 /ㄹ/바로 뒤에 초성 /ㄹ/이 오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30) 14. #6 교수님 마라기소또 좀 빠라서. 그리고 사투리 좀 이써요.

267. #1 우리는 그냥 노러 해요. 그냥..

232. #2 우리 그나레 아치메 경보공에 가서 그 한보글 비리고 이버써요.

이것은 ‘부사+용언’에서 (31)‘자몰라{잘 몰라}’와 ‘용언+체언’ 환경에서 연음 없이 발음한 ‘하일{할 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ㄹ/누락의 예로 찾을 수 있다.

(31) 258. #5 아니면 충구게 도라가면 하일 자몰라요. 뭐가 인는지 자 몰라요.

용언에서 살핀 종성 /ㄹ/누락 오류의 가장 큰 특징은 관형사형 어미 ‘-ㄹ’을 누락하는 것이었다.

<표 14> 용언에서 종성 /ㄹ/누락 오류

ㄹ누락	어간에서의 누락			어미에서의 누락	
	완전누락		부분누락		
용언	산고{살고}	만드고	드리께요	조렵하{할}	주{줄}
	노러	자모해써	적믄{젊은}	생가카{할}	되{될}
	빠라서	친저하고		가{갈}	보{볼}
	(예를)드면	환바란		드러가{갈}	

	비리고	즈거운		느껴{느낄}	
	꼬고{골고}	파려써요			
용언+ 체언				신청하때	하때
				끈나때	태어나때
				쓰기하때	통화하때
				하일	머그때
				요리하때	설명하쑈
				마라쑈	통하수
				만드쑈	선택하쑈
					보쑈

(32)를 보면 ‘용언 + 체언’의 환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때’와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존명사 ‘수’ 앞에서 사용한 관형사형 어미인 종성 /ㄹ/을 누락하는 예가 53.5%로 절반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32) 130. #2 전기로 요리하때.. 그.. 뭐지 라면 끄릴 수 인는..
 134. #2 우리 야끄 머그때 그 마시 어때요?
 106. #6 그냥 쓰기하때 어하땅 배운거 좀 가타요.
 88. #6 하사람 여러.. 배째시오 께임 사람 선택하쑈 이써요. 여러 가지.

이 밖에도 제보자 #5에게서 겹받침이 포함된 (33)‘저믄{젊은}’이 자음군 중 /ㄹ/만 누락하고 나머지/ㄱ/은 연음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96. #5 혼대는 저믄 사람도 만코 크럽, 크럽또 재미이써써요.

다시 정리하면 종성/ㄹ/은 음절 말과 자음 앞에서의 누락이 다수였고, 숫자를 나타내는 어휘와 목적격 조사, 관형형 어미에서의 누락이 특징적이다.

1.3. 종성 /ㄴ/, /ㅇ/, /ㅁ/에서의 누락 오류

비음 종성 /ㄴ/, /ㅁ/, /ㅇ/의 누락 오류는 앞서 본 폐쇄음 /ㄷ/, /ㄱ/, /ㅂ/이나 유음 /ㄹ/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모국어인 중국어에서 종성 자음으로 발음이 존재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3.1. 종성 /ㄴ/의 누락 양상

/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누락 오류가 많이 나타난 종성이 /ㄴ/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인데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의 종성으로 [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술 발화 자료에서 종성 /ㄴ/을 포함한 어휘는 총 272개였고 그 중 누락 오류를 보인 어휘는 44개로 오류율은 16.1%였다. 오류가 나타난 어휘들을 누락이 나타난 음절에 따라 나누고, 다시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고유어’로 분류하였다.

<표 15> 명사류에서의 /ㄴ/누락 오류

ㄴ누락	1음절		2음절		3음절
고유어	아{안}	어니{언니}	무스*	그러*	
	도{돈}	예날	이러{이런}* 라며	다르{다른}* 라며	
	하{한}	쏘님			
한자어	저반전	이형{인형}	얼로홍보하짜		후반저
	저고{전공}	거물{건물}			
	혀관	시입쌍			

	과심{관심}				
한자어+ 고유어	서생님/ 서앵님	지짜{진짜}* 			

분석 결과 어말에서의 누락이 전체의 47.4%였고, 자음 앞에서의 누락은 42.1%, 그 중에서도 (34)의 ‘어니{언니}’, ‘쏘님{손님}’, ‘예날{옛날}’ 등 종성 /ㄴ/다음에 초성 /ㄴ/이 연속해서 오는 경우에 종성 /ㄴ/을 누락하였다. 한자어 중에서는 ‘시입쌩{신입생}’의 경우 각각 발음이 [시납쌩]으로 연음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종성 /ㄴ/을 누락하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그대로 발음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 (34) 28. #2 네, 어니랑 아주 싸이 아주 친해요.
 100. #4 왜냐하면 저 예날부터 케이팝 계소 대게 관시미 이짜나요.
 249. #2 쏘님 간 후에 쌍을 치우고 그 쏘니민 오기 저네 쎬팅도 하고.

또 (35) ‘이러{이런}’, ‘무스{무슨}’, ‘다르{다름}’, ‘그러{그런}’와 같은 관형어²¹⁾에서의 /ㄴ/ 누락도 빈번하였다.

- (35) 139. #1 선배를 서우레 가버려서 저에게 추쳐하고 이러 알바를 시자개써요.
 231. #2 그냥 어마 시키라서. 다르 이유가 업써요.
 96. #4 그때 이거 무스 노래? 와 진짜 신난다. 이러케 차자봐서 패니 돼써요.

그리고 체언에서 (36)의 ‘허관{현관}’, ‘후반저{후반전}’, ‘저반전{전반전}’, ‘서생님/서앵님{선생님}’, ‘이형{인형}’, ‘쏘님{손님}’에서와 같이 비음 종성이 앞뒤로 연속할 때 종성 /ㄴ/을 누락한 예가 전체의 36.8%로 다수 발견되었다.

21) <표13>에서 부사나 관형사는 어휘 뒷부분에 *로 표기함.

- (36) 295. #1 후반저하고 저반전, 저반저는 이씨뿐동안, 후반저는 이씨뿐동안, 이렇게 하는거예요.
 366. #1 혀관 미테 괄리사무소 여페 자스썰이썰요.
 344. #1 4급, 4그베요. 그리고 서생님도 엄격? 아주 엄격한 서생님셔서 수썰도 매일 내야하고 매일 지까지 안돼.
 66. #6 침대 가튼.. 컴퓨터, 농구가튼? 여자.. 그리 의형 아니고 자근거.

뒤에 오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연음은 대부분 실현되었고, 첫음절에서의 종성이나 음절 말에서의 종성 누락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체언+조사’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16>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ㄴ/누락

ㄴ누락	체언에서	조사에서
체언+조사	도서관라든가	시가느
	고민이나	가조그

‘시가느{시간은}’, ‘가조그{가족은}’처럼 조사의 종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37)‘시가느{시간은}’은 앞서 명사류 (36)의 예처럼 앞과 뒤의 음절의 종성이 연속해서 비음인 경우 종성/ㄴ/을 누락한 예이다.

- (37) 213. #1 지그믐 그냥 계획기 이썰서 아지 장소와 시가느 정하지 아나요.

총 네 건의 오류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음 앞에서의 누락이었다.

<표 17> 용언에서 종성 /ㄴ/의 누락

ㄴ누락	어간에서의 누락	어미에서의 누락

용언	귀해서	노는{놓는}	겨론하{결혼한}
	간단하게	봐는{봤는}	끈나{끝나}
	충전하는	사고이는	
	고미하고	머시는{멋있는}	
	퇴그하고	의는{있는}	
	추천하고	아나는데	
	전화하는	해는데{했는데}	
		괜찮아요{괜찮아요}	

용언에서의 종성 /ㄴ/누락 양상도 명사류에서의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7>에서와 같이 (38)‘봐는{봤는}’, ‘의는{있는}’, ‘노는{놓는}’, ‘해는데{했는데}’, ‘끈나{끝나}’ 등의 어휘가 발음할 때 [봐는], [의는], [논는], [해는데], [끈나]와 같이 앞 자음의 장애음이 뒤에 오는 비음으로부터 비음의 성질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장애음의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성 /ㄴ/누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앞의 체언에서 종성/ㄴ/ 다음에 오는 음절의 초성이 /ㄴ/인 경우의 발음과 같아지고, 그때 나타난 종성 누락 현상이랑 비슷한 예가 되겠다.

- (38) 90. #4 비스타게 만들어서 이미 봐는거 다시 보면 좀 재미가 업썬요.
 112. #1 음, 제일 나오는 혀관 혀관 여페는 신발, 신발짱 쪽게 가치 노는 올짱 그리고 채쌍, 채짱.
 128. #3 팬드리 우리는 너만 거정해따고 해는데 장거는 얼마나 기다려는지 무리봐썬요.
 287. #4 친구들 다 수어팔 때 가치 인는데 수업 끈나 후에 친구 업썬요.

또 (39)‘간단하게{간단하게}’, ‘사고이는{살고있는}’, ‘겨론하{결혼한}’의 경우도 종성 /ㄴ/발음이 앞뒤 음절에 연속해 있는 경우에 속하며, 이때에도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밝힌다.

(39) 24. #4 그냥 간다하게 설명하는거 좀 드꼬 너무 기픈 거슬 아지 배우지 안내씀니다.

36. #1 글고 제 사고인는 지블 오는쫘게 이써요.

224. #4 겨론하 후에 제가 생겨서 짜리 마니 썩써요.

1.3.2. 종성 /ㅇ/ 누락 양상

다음은 총 어휘 266개 중에서 32개의 누락 오류를 보여 누락률이 12%로 나타난 종성 /ㅇ/의 오류 양상이다. 종성 /ㅇ/을 누락한 어휘를 역시 명사류와 용언으로 분류하고 그 중 명사류는 다시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어휘 내에서 누락이 몇 번째 음절에서 나타났는지 <표 18>과 같이 정리하였다. 어말에서의 누락은 21.1%로 나타났고 자음 앞에서의 종성 /ㅇ/누락이 52.6%, 모음 앞에서의 누락이면서 비연음 환경인 경우 오류율은 전체의 26.3%로 나타났다.

<표 18> 종성 /ㅇ/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ㅇ누락	1음절		2음절		3음절
	또안{동안}		외도딸 {외동딸}		
한자어	새일	여어회화	여해	전고	주인고
	자년	여어영문	시처	수가신청	
	바학	겨영하과	채싸	공토전 {공통점}	
	도릭썩	도영상			
	벼원	자시{장식}			
	내장고				

한자어+고유어			사자님	항구말	
한자어+외래어				주고아파트	

(40) ‘내장고{냉장고}’, ‘도영상{동영상}’, ‘여어영문{영어영문}’, ‘사자님{사장님}’, ‘전고{전공}’, ‘자년{작년}’, ‘도릭썩{독립성}’, ‘항구말{한국말}’의 예를 통해 앞뒤 음절에 비음 종성이 연속해서 있는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은 발음하기 어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0) 164. # 저 어려썩 때 부모님 항상 지베 업썩서 아보지 항상 되게 마니 양 늘 끄리고 자근 뻑썩에 너어서 내장고에.
 155. #1 모탈때는 도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그냥 지내요.
 70. #1 음 자년 구월에 제주대에 와썩썩요.
 128. #6 근데 사자님 아라주고아파트 새로운 지베 만드려썩썩요.

뿐만 아니라 (41) ‘새일{생일}’, ‘도영상{동영상}’, ‘겨영하과{경영학과}’, ‘여어회화{영어회화}’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o/이고 후행하는 인접음의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은 종성 /o/의 발음을 회피하였다.

- (41) 104. #6 글썩기, 여어회화, 두 개 이썩썩요.
 230. #3 시땅에서 가조드리 모이고 바블 머꼬 새일케이크 먹거요. 우리오 바 나랑 똑가튼 새일 아니에요.
 18. #6 처으메 제가 겨영하과 신청해썩썩요. 그런데 면저시험 떠려져썩썩요.

‘체언+조사’의 환경에서의 누락 오류도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성/o/의 경우 연음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모두 완전 누락이었고 모음 앞에서의 종성 /o/ /누락과 자음 앞에서의 누락이 각각 50%로 절반씩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9> ‘체언+조사’ 환경에서 종성 /ㅇ/ 누락 오류

ㅇ누락	완전 누락
체언+조사	한면이
	내자는{내장은}
	주반하고
	나주에
	반는{방은}
	시처에/시처은{시청은}

(42) 46. #1 반는 세 개 이십니다.

184. #5 전보는.. 내자는 요리기, 요리기구로 아니면 칼, 칼로 데치다?

(42)의 ‘반는{방은}’, ‘내자는{내장은}’과 같이 종성 /ㅇ/을 누락하고 조사를 대치한 경우가 있었으며, 후행인접음은 (43)와 같이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하였다.

(43) 128. #6 제가 시처에 다칼비집 가서 그 지배서 다칼비 머겨쎄요. 근데 시처은 그 지배 알바 구하고..

255. #4 하지만 나주에 조려한 후에 아마 도우미 되 썬 인는 거 가타요.

모국어에 발음이 존재하는데도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모국어의 간섭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여러 가지 음운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모국어와 다른 형태의 초,중,종성의 조합과 같은 언어 현상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3.3. 종성 /ㄹ/ 누락 양상

마지막으로 종성 /ㄹ/은 전체 어휘 120개 중에서 14개의 누락 오류 어휘가 나왔고 오류율이 11.6% 로 7개 종성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연음 환경에서의 누락은 없었고 모두 어말이거나 자음 앞에서의 누락이었다.

<표 20> 종성 /ㄹ/ 누락 오류가 발생한 명사류

ㄹ누락	1음절		2음절		3음절
	어말	자음	어말	자음	
고유어	어마	싸우	사라		
	모매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점시			부모니
					사장니
					선생니/성생니
외래어	루메이트				

모국어에 있는 종성 발음 /ㄹ/, /ㅇ/보다 /ㄹ/의 오류율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심지어 다른 종성에서의 누락 오류는 있었으나 /ㄹ/누락은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제보자도 있었다. 종성 /ㄹ/이 모국어의 발음에 존재하지 않지만 유독 오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백경미·김태경(2014)에서는 음절말 위치에서 해당하는 자음의 강도가 낮을수록 선호된다는 Vennemann(1988)을 인용하여 폐쇄음 종성에 비하여 비음 종성이 보다 배우기 쉬운 무표적인 음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종성 /ㄹ/의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음 앞에서의 누락인 경우 모두 (44)‘어마{엄마}’, ‘모매{몸매}’, ‘루메이트{룸메이트}’처럼 첫 음절의 종성이 /ㄹ/이고 연속해서 다음 음절의 초성 /ㄹ/이 오는 /ㄹ/ 연쇄 환경에서의 누락이다.

(44) 281. #2 네 토전, 5급 토전하고 어마의 잔소리는 하지 마고.

198. #5 그냥 차마요. 다이어트. 모매 유지해야 해요.

114. #4 저 엔날 반친구에 룬메이트입니다.

(45)‘부모’, ‘선생’, ‘사장’ 뒤에 오는 고유어 ‘님’에서 /ㄹ/누락도 제보자마다 비슷하게 나타났다. ‘점시’도 음절 말에서의 /ㄹ/누락이면서 앞뒤 음절의 종성이 모두 /ㄹ/일 때의 누락으로 전체적인 누락 양상이 앞서 살펴본 /ㄴ/ 누락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마 조음 방식이 비슷한 비음 종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한다.

(45) 102. #4 엔나 와이저 패니어서 양현서, 사장니, 서대지라는 팀도 아라요.

346. #1 부모니랑 그나레 뭐해써요? 그리고 어떤 사라를 봐써요? 무슨 트빨한 이리 인는지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194. #5 어제 점시 하쌍회과네서 머거써요. 제육보곰.

<표 21> 다양한 환경에서 종성 /ㄹ/의 누락 오류

ㄹ누락	누락 어휘
체언+조사	우스느
체언+용언	바머꼬
	바너코
용언	포하하면

‘체언+조사’ 환경에서는 (46)‘우스느{웃음은}’에서 앞 음절의 종성 /스/은 자연스럽게 연음 실현하였으나 다음 음절의 종성/ㄹ/은 누락한 채 앞 음절의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는 주격 조사 ‘느’으로 대체하였다. ‘바머꼬{밥 먹고}’, ‘바너코{밥 넣고}’는 제보자들이 발음 시 띄어 읽지 않고 붙여 읽어 후행인접음이 무엇인지 표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언+용언’의 범주에 넣어 오류를 살폈음을 밝힌다. 또 [밤

머꼬], [밤너코]와 같이 연쇄하는 자음에 의해 ‘밥’의 종성이 /ㅁ/으로 발음되어야 하므로 /ㅁ/의 누락으로 보았다.

- (46) 86. #4 저는 우스는 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는 몸개그 대게 좋아해요.
219. #1 추석.. 카조끼리 모여서 가치 바머꼬 그리고.. 그 항구게 송편 비스타는 웨병 그런 음식글 머겨요.
186. #5 참기르므로 보코서 바너코 좀.. 그리고.. 소끔하고 참기름 너코 가치 보코서 물 부꼬 끄려서 머겨요.

종성/ㅁ/누락의 비율이 모국어의 종성 발음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종성에서의 자음 누락 현상은 단순히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들 중에서도 /ㅁ/과 같이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발음이 있는가하면 폐쇄음 /ㄱ/, /ㄷ/, /ㅂ/이나 유음 /ㄹ/같이 습득하기 힘든 발음도 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러므로 오류 양상을 살필 때 모국어와의 음운 체계 대조와 함께 언어 보편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치

이 연구에서 ‘대치’란 어말 종성에서 원래 실현해야 하는 발음이 아닌 다른 자음으로 발음을 대신하는 오류를 말한다. 구술 발화 자료에서 나타난 대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의 순서는 ㅁ(19.1%)>ㄱ(17.5%)>ㅂ(7.5%)>ㅇ(5.6%)>ㄴ(3.7%)>ㄹ(2.8%)>ㄷ(0%)로 전체적인 오류 빈도는 누락에 비해서 낮았으나 누락에서는 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던 종성 /ㅁ/에서 대치 오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워했던 /ㄷ/은 누락에서 오류율이 높았던 것에 반해 대치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ㄱ/과 /ㅂ/은 대치 오류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미(2018)에서는 어말 종성에서 자음 대치가 연구개음 /ㅇ/을 치경음 /ㄴ/으로 대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대치한 오류로 나타났고, 연구개폐쇄음 /ㄱ/을

양순폐쇄음 /ㅂ/으로, 또는 연구개 비음 /ㅇ/을 유음 /ㄹ/로 대체하여 종성에서의 자음 대체는 조음 위치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태경(201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말 종성의 위치에서 연구개음을 양순음으로 잘못 발음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 치경음 /ㄴ/을 연구개음인 /ㅇ/으로 바꾸어 발음한 예가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반대의 경우도 #3을 제외한 다른 제보자들에게서 모두 나타났다. 반면에 /ㄷ/대치는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체 오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종성 /ㄷ/은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자음 대체 오류를 조음 방식이 비슷한 자음끼리 분류하여 그 양상을 분석했다.

2.1. 종성 /ㄱ/,/ㅂ/에서의 대체 오류

종성 /ㄱ/은 대체 오류율이 17.5%로 가장 높은 /ㄹ/ 다음으로 많은 대체 오류를 보였다. <표 21>은 종성 /ㄱ/에서 대체 오류를 보인 어휘들을 대체한 자음별로 분류하고 체언, ‘체언+조사’, 용언의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표 22> 종성 /ㄱ/의 대체 오류

ㄱ대치	ㄷ		ㄱ		ㄴ	ㅇ	ㅂ
체언/ 체언+조사	문또리	날찌	생가께는	쌌끼/ 새끈	저년	원쫘는	집쫘
	진쫘	계손	선태끼	야끝	샌는	오른쫘는	
	순쫘/ 순체	건쫘	이뿐시끄로	지쫘	모는		
	도잔 {도착}	챌	유하끝	떡끼랑			
	건쫘 디자인	경군 대하꼬		항구께			
용언	튼뻐한		자끈				

	찢찌만/찢따가				

종성 /ㄱ/의 대치 양상은 다른 종성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ㄱ/을 /ㄷ/으로 대치한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는데 모두 자음 앞에서의 대치였고, ‘몯뜨리{몯도리}’, ‘건쑤디자인{건쑤디자인}’, ‘경궤대하교{건궤대학교}’처럼 후행하는 인접 자음 /ㄷ/과 같은 자음으로 대치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47)‘겉쑤{겉정}’, ‘낱찌{낱지}’, ‘쑤찌/쑤체{쑤제}’처럼 바로 뒤 음절의 초성 자음이 /ㄷ/과 조음 위치가 같은 치조음 /ㅅ/이거나 비교적 조음위치가 가까운 구개음인 /ㅈ/./ㅊ/인 경우 /ㄷ/으로 대치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행하는 음에는 대부분 경음화를 실현하였다.

- (47) 108. #2 네 오꺼리하고 몯뜨리 가튼거.
 239. #2 나중에 그 건쑤디자인, 건쑤디자이느 지식 공부하고.
 10. #3 일관, 이관, 그리고.. 고이때 채글 바꿔써요. 그 채 우리 쑤체. 이런 책.
 268. #5 겉쑤되고 부모님 흑씨 어떤 이리 생길, 생겨때 나는 겨테 업써서.
 209. #2 그 낱찌는 아직 생생하고, 그 특빠란 장 찢거서 머거요.

/ㄱ/으로의 대치도 32.3%로 많이 나타났는데, (48)에 ‘생가께는’, ‘새끼’, ‘선태끼’ ‘자끈’ 등 /ㄱ/을 /ㄱ/으로 대치한 경우는 전부 종성/ㄱ/이 모음 앞에 위치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음 앞에서 종성은 연음으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지만 다수의 예가 발견되어 이 연구에서는 대치로 보았다.

- (48) 235. #1 재료를 다 너코 끄려요. 제 생가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253. #1 보끔빠, 보끔빠하고 치킨가쓰 자끈거, 도마토소쓰하고 찢거먼는.
 362. #1 모타면 난 두뻐째 선태끼.. 선태가는 정고늘 할 꺼예요.
 188. #2 또 호빠처럼 쑤끼 가타요.
 265. #2 제가 조아하는 지궤, 제가 의사를 조아해서.

이 오류 양상은 종성 /ㄱ/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 단순히 연음을 적용하면 되는데 자음이 오는 경우 경음화하는 것을 혼동하여 실현했거나 폐쇄음 종성 /ㄱ/발음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평음을 경음으로 강하게 발음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이 때의 뒤 음절의 모음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 /ㄱ/, /ㅣ/, /ㅓ/로 모두 단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었다.

겹받침 종성을 /ㄹ/을 /ㄱ/으로 발음해야 하는 (49)‘닭’은 모든 제보자가 /ㄹ/로 발음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대치 오류로 보기보다는 자음군 단순화를 잘못 실현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종성 발음이 실현되기는 하고, 따로 범주화하기 곤란하여 표에는 넣지 않고 이 부분에 포함하였음을 일러둔다.

(49) 127. #1 재료? 요리해뎠 거는 마트에서 달고기를 사서, 고기를, 고기 중에 달고기 제일 싸요.

203. #2 안동찜닭 그거 아니요, 그냥 꼬추장만.

88. #5 음 , 그런 매운 달빤, 달빠라고 달꼬기 머겨써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한국말 종성에서의 겹받침은 단순화되어 하나만 발음되고,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중 뒤에 있는 자음이 연음하는데, 겹받침에서의 오류가 대부분 자음군 중 앞 자음만을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뒤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는 어휘에 대해서 정밀한 학습지도가 요구된다. 박시균·최경복(2014)에서는 중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겹받침 발음 오류 분석에서, 뒤의 자음을 발음해야 하는 경우에 앞의 자음을 발음하는 오류율이 64%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학습자들이 겹받침 /ㄹ/, /ㄹ/, /ㄹ/계열의 단어에서 앞 자음을 발음하는 오류를 많이 보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50) 120. #2 다른 사라메 물거니지만 집쩍 가져가써요. 도도기 이써요.

166. #2 왼종는 쪽가면.. 왼종는 주방, 마자요? 오른종는 테리비전이꼬 소파도 인는 그거 뭐예요?

이 밖에도 다른 제보자들과 달리 제보자 #2에게서는 앞 음절 종성 /ㄱ/을 뒤 음

절의 종성인 /ㅂ/으로 대치한 (50)‘집쩍[직접]’의 예도 나타났다. 또 ‘오른중는{오른쪽은}’ ‘왼중는{왼쪽은}’처럼 /ㅇ/으로 대치한 경우도 있었다.

<표 23> 종성 /ㅂ/의 대치 오류

ㅂ대치	ㄷ		ㄴ	ㄱ
체언/ 체언+조사	산신명	사고싶던{사고싶던}	문 <u>ㅂ</u> 어나	도릭 <u>ㅂ</u> {독립성}
	집 <u>ㅂ</u> 인			

종성 /ㅂ/은 /ㄷ/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경우가 (51)과 같이 나타났다. ‘집주인{집주인}’의 오류 예는 ‘집ㅂ인{집주인}’처럼 대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종성/ㅂ/과 /ㄷ/을 혼동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51) 230. #2 먼저 명동에 가ㅂ요. 근데 그 ㅂ인네.. ㅂ인 마래ㅂ요.

34. #4 필ㅂ 수어ㅂ ㅂ인명 그ㅂ도.

(52)에서 /ㅂ/을 /ㄴ/으로 대치한 제보자 #1은 ‘문ㅂ어나{문법이어나}’에서 두 번째 음절에서 ‘법’의 /ㅂ/종성을 바로 앞 음절에서의 종성 /ㄴ/과 혼동하여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52) 313. #1 그래서 ㅂ어나 도영ㅂ 안 ㅂ요.

260. #5 도릭, ㅂ을 키울 ㅂ 이ㅂ요.{독립성을 키울 수 있어요.}

제보자 #5의 대치 오류 (52)‘도릭ㅂ{독립성}’은 첫음절에서 종성 자음 /ㅇ/을 누락하고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ㅂ/은 조음방식이 같은 폐쇄음인 /ㄱ/으로 대치하였다.

2.2. 종성 /ㄴ/, /ㅇ/, /ㅁ/에서의 대치 오류

19.1%로 가장 높은 대치 오류율을 보인 종성 /ㅁ/의 대치 오류 양상을 먼저 살펴보면 /ㅁ/과 조음 방식이 같은 /ㄴ/과 /ㅇ/으로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드러난 어휘를 환경에 따라 명사류, ‘체언+조사’와 용언으로 분류하여 <표 24>에 정리하였다. /ㅁ/에서의 오류는 주로 모국어에 종성 발음으로 있어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ㄴ/으로의 대치가 95.8%였다. 대치 오류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발생하였고 첫 번째 음절에서의 대치가 45.8%로 가장 많았다. 또 <표 24>의 ‘부모님{부모님}’, ‘사장님{사장님}’, ‘교수님{교수님}’은 앞서 어떤 제보자에게서는 /ㅁ/누락 오류로 나타나기도 했던 어휘인데 다른 제보자는 /ㄴ/으로 대치하여 발음했다.

<표 24> 종성 /ㅁ/의 대치 오류

ㅁ대치	ㄴ					ㅇ
	산뺨	산시뿐도안 {삼십분동안}	지근까지	강나네 {강남에}	교수님	
명사류 / 체언+ 조사	산뺨	산시뿐도안 {삼십분동안}	지근까지	강나네 {강남에}	교수님	삼급{삼급}
	엄청	산심명 {삼십명}	아친시싸		부모님	
	전수	산그{삼급}	고산 {고삼}		사장님	
	난자칭구	전점	싸란드리		화장품 도	
	친대	푼지도 {품질도}	소근		공토전 닌	
용언	힌드러					

(53) ‘산뺨{삼뺨}’, ‘엄청{엄칭}’, ‘전점{점점}’, ‘강나네{강남에}’ 등의 예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제보자들은 앞뒤로 종성 /ㅁ/이 연속해서 있거나 비음 종성이 연속해서 있을 때 /ㅁ/을 /ㄴ/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 숫자 ‘삼’이 포함된 합성어

에서는 제대로 발음한 경우도 있었지만 모국어에서의 발음에 영향을 받아 ‘산’, ‘상’으로도 나타나 /ㄴ/또는 /ㅇ/으로의 대치가 실현되었다.

(53) 232. #2 유명한 빈떡떡 사고 머겨썌요. 언청 마시썌.

54. #2 이제 전전 친.. 치나고 아니고 음.. 이야기하고 그 사라믄..

279. #1 네, 산쩨 바들 썌 이썌요. 제일 머르는 머른 선.

장찌엔(2017)에서는 중국어 음절 말에 비음 종성이 있음에도 음절유형의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ㄴ/, /ㅇ/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위국봉(2014)에서는 비음 종성의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 /ㅡ/, /ㅣ/, /ㅏ/, /ㅑ/와 /ㅓ/, /ㅕ/가 앞서 나타나면 발음이 [ㄴ→ㅇ]으로 대치되고, /ㅇ/앞에 /ㅛ/모음이 올 때 종성 발음이 [ㅇ→ㄴ]으로 대치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구술 발화 조사를 통해 산출한 /ㄴ/과 /ㅇ/의 대치 오류 예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이 [ㅇ→ㄴ]의 형태의 대치 오류가 더 많았고 이 때의 비음 종성의 선행모음은 /ㅏ/, /ㅓ/, /ㅣ/, /ㅛ/, /ㅑ/, /ㅕ/로 다양했다. 또 [ㄴ→ㅇ]의 경우 선행 모음은 각각 /ㅣ/, /ㅏ/, /ㅑ/, /ㅣ/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성 /ㅇ/과 /ㄴ/의 대치 오류율은 각각 5.6%과 3.7%로 /ㅇ/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핀 다른 대치 오류 어휘들과 같이 불변성이 있는 어휘와 가변성이 있는 어휘들로 분류하여 <표 25>에 정리하였다.

<표 25> 종성 /ㄴ/과 /ㅇ/의 상호 대치 오류

/ㄴ/, /ㅇ/대치	[ㄴ→ㅇ]			[ㅇ→ㄴ]		
	체언/ 부사/ 체언+조 사	정고늘	환경	관광경영하파	여어연문	산태반
항구		설새님/ 성생님	친구	가잔	편소	여행개뜨른
항구거		청청히	관광개뜨리	저고늘/ 전고는	가바늘	전문여페
운정				돈대문	훈대	반잔에서

				비 <u>행</u> 기	이 <u>시</u> 츠 <u>늘</u>	바 <u>는</u> {방은}
용언				몹 <u>는</u>	똥 <u>동</u> 해	

종성 /ㄴ/에서의 대치 오류는 /ㅇ/으로, 종성 /ㅇ/에서는 /ㄴ/으로 대치한 서로 간의 상호 대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ㄴ/을 /ㅇ/으로 대치한 오류는 전체 오류 중 90%가 첫 번째 음절에서 실현되었는데 ‘황경{환경}’ ‘성생님{선생님}’ ‘광광{관광}’처럼 앞 음절 종성이 /ㄴ/이고 뒤에 오는 음절 종성이 /ㅇ/일 때, 두 종성을 모두 /ㅇ/으로 발음하는 대치 오류를 보였으며 이럴 때 주로 앞의 음절 종성인 /ㄴ/을 대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54)‘똥동해{똥똥해}’, ‘청청히{천천히}’처럼 종성 /ㅇ/이나 /ㄴ/이 앞뒤 음절에서 연속해서 있으면 하나는 /ㄴ/으로 대치하거나 두 개 다 /ㅇ/으로 대치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상호 대치는 모두 자음 앞이거나 어말에서 발생하였고 모음 앞에서의 오류는 5.8%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 (54) 142. #2 저를 보면 왜이러케 똥동해? 빠리 쌀 빼라.
 57. #3 성꺼기 청청히 그런 편이에요.
 148. #6 제주도 황경 조타고 드러써요.
 18. #2 아, 우리 꼬등하꼬 꼬등하꼬 사물실에 성생니랑 총주에 하꼬에 선생님 협찬해써서 우리 하꼬에 하쌍 추천하고 거기에 가써요.
 82. #5 명동에 외국 광광개뜨리도 만코 마시는 칩 만니 이써요.
 22. #4 광광겨영하파입니다.

또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을 ‘항구’, ‘친구’를 ‘칭구’로 종성/ㄴ/을 /ㅇ/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보였다. 특히 항구는 모든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종성 대치 오류를 실현하였는데 앞서 /ㄱ/누락에서 살폈다시피 모국어에서의 발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55) 281. #4 운정아저씨? 나쁜 사라문 아니에요. 그냥 좀 화 자주 내는 사라미에요. 택씨 운전기사.

6. #4 제주도처럼 바다도 이꼬 산도 인는 작끈 여행도시입니다.

241. #4 우리 어머니도 요한사 우녕하고 이써서 저는 관광편 가고시퍼요.

두 자음간의 상호 대치 중에서 [o→ㄴ]으로의 대치가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o/을 /ㄴ/으로 혼동한 경우 제보자 #4의 (55)‘요한사{여행사}’의 예를 보면, 이 제보자는 앞서 ‘여행’을 바르게 발음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두 종성간의 혼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의 대치가 일어났던 (55)‘운정{운전}’과 ‘운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ㄴ/과/o/은 모두 중국어에 종성 발음이 존재하는 영향으로, 누락보다는 발음하기 편한 대로 혼동하여 실현한 것이다.

이 외에 /ㄴ/을 /ㅁ/으로 대치한 예는 (56)‘임문대{인문대}’ 단 한 건이 있었는데, 앞서 살폈다시피 /ㅁ/대치 오류에서 반대로 음절 말에 있는 /ㅁ/을 /ㄴ/으로 대치한 경우는 훨씬 많았다. 이것은 종성 /ㅁ/발음보다 모국어에 있는 /ㄴ/발음이 더 익숙하여 그리 대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문대{인문대}’의 경우 반대로 대치한 것은 조음 위치가 동일한 자음/ㅁ/을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6) 106. #1 나가서 음..씨유펴니저메 지나가고 임문대도 지나가고 그럼 기레
쭈욱 갈 수 이써요.

그리고 제보자 #1에 한해 나타난 ‘이시츠늘{이십총을}’과 ‘가바늘{가방을}’의 오류에서 /o/을 /ㄴ/으로 대치하여 연음한 것인지 누락으로 봐야할 것인지는 고민이 있었는데 앞에서 ‘모는{목은}’ ‘벼는{벽은}’, ‘호테는{호텔은}’ ‘신바는{신발은}’, ‘오는{웃은}’등은 종성 자음을 누락하고 조사를 대치 한 것으로 보았으나 /o/의 누락으로 볼 경우 ‘늘’이라는 조사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바 이 연구에서는 대치 오류로 집계하였음을 알린다.

(57) 36. #1 이시츠늘 도차개서 놀르고 바로 왼쪽 오른쪽 두 지비 이써요. 글
고 제 사고인는 지블 오는쫘게 이써요.

157. #1 머고 나서 가바늘 가지고 바로 교시레 와요.

결론적으로 비음 종성 /ㄹ/, /ㄴ/, /ㅇ/은 조음 방식이 유사한 영향으로 종성간의 혼동이 잦고 서로간의 상호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3. 종성 /ㄹ/에서의 대치 오류

종성 /ㄹ/은 전체 어휘 212개 중에서 대치 오류를 보인 어휘가 6개로 2.8%의 비교적 낮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용언에서의 오류는 없었고, ‘체언’이나 ‘체언+조사’의 환경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은 <표 26>과 같다. 종성 /ㄹ/은 /ㄴ/으로 대치한 오류가 전체의 83.3%였고, /ㅇ/으로의 대치는 16.7%로 나타났다.

<표 26> 종성 /ㄹ/의 대치 오류

ㄹ대치	ㄴ			ㅇ
	체언/ 체언+조사	한머니	선명{설명}	인년{일년}
	주만마다	화장실는{화장실은}		

<표 26>를 보면 종성 /ㄹ/은 /ㄴ/과 /ㅇ/으로만 대치하여 발음하였다. 이는 다른 대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모국어에 있는 종성 발음으로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ㄴ/으로 대치한 어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음 앞에서의 대치는 없었고 모두 후행 인접자음이 /ㄹ/이거나 /ㄴ/이었다.

- (58) 129. #1 선명 하 쑈 업써요. (웃음) 선명하기 어려워요. (웃음)
- 174. #2 한머니의 방 여폐.
- 80. #6 음.. 사람 심명 가치.. 지금 그 께임 경기 이써요. 항구게서 시비 월 삼닐, 시비월 사밀 인천에 할꺼예요. 그 경쌩.
- 266. #6 아니요, 태어나고 인년후에 한 살.

(58)‘경쌩{결승}’은 두 번째 음절 말 종성을 앞 음절 말에 대치하여 발음하는 오류

를 보였다. ‘인년{일년}’도 대치한 자음은 /ㄴ/으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앞뒤 음절의 종성을 일치시키는 같은 오류로 보인다.

또 종성 /ㄹ/의 대치 오류는 제보자 #1, #2, #6에게서만 나타나고 #3, #4, #5는 대치 오류를 실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는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굳어진 개별적인 발음 습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잦은 오류 양상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개별적 오류를 줄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첨가

첨가는 앞서 살펴본 누락과 대치에 비하면 비교적 발음의 오류율이 낮았다. 유소영·강현화(2018)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종성 발음오류에서 첨가는 ㄹ>ㄱ>ㄴ>ㅇ>ㄷ>ㅂ>ㅁ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ㄹ/일 때 받침에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거나²²⁾ 두 번째 음절 초성이 /ㄱ/일 때 마찬가지로 받침에 /ㄱ/을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고²³⁾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첨가가 나타날 수 없는 /ㅇ/을 제외한 6개의 종성 중에서 /ㄱ/에서는 #3에게서 1건 나타나고 다른 제보자에게서 오류가 없었다. 또 약간의 개별적 차이가 있었지만 /ㄴ/첨가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종성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종성 /ㄴ/ 발음 첨가 오류

ㄴ첨가	체언/‘체언+조사’		용언
	방안네{방안에}	운녕{운영}	만나요{많아요}/만니{많이}
	단너{단어}	만넌{만원}	권뉴하면{권유하면}
	문니{문이}	연뉴때{연휴때}	안나써요{않았어요}/안나요{않아요}
	전네{전에}	한냥대{한양대}	안나고{안하고}
	문놔체험	삼닐{삼일}	큰니까{크니까}

22) 예 : 살람 많이 있어요.

23) 예 : 각결이 찼다는

제보자 #1을 제외하고 모든 제보자가 종성이 /ㄴ/인 경우에 모음 앞에서 첨가 오류를 보였는데, 앞서 다른 종성에서 연음을 잘 발음한 것에 비해 /ㄴ/종성 바로 뒤에 /ㄱ/,/ㄷ/,/ㄱ/,/ㄷ/ 등의 모음이 오는 경우 /ㄴ/을 첨가하여 실현하였다. 체언과 용언에서 모든 오류는 (59)‘삼닐{삼일}’을 제외하면 모두 앞 음절 종성 /ㄴ/을 후행하는 모음에 첨가하는 양상이었는데 ‘삼닐{삼일}’은 ‘사밀{삼일}’로 바르게 발음하기도 하여 정확한 발음을 숙지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9)‘만나요{많아요}’나 ‘만니{많이}’, ‘안나씨요{않았어요}’와 ‘안나요{않아요}’의 겹받침 /ㄴ/의 다음 음절에 첨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아 겹받침 발음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큰니까{크니까}’에서는 이것이 ‘크다’라는 용언의 활용을 잘못하여 생긴 오류인지 자음 첨가의 오류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종성 발음이 없어야 하는 음절에 /ㄴ/발음이 실현되었기에 같은 오류를 실현하지 않도록 교정해야 할 것이다.

- (59) 80. #6 항구게서 시비월 삼닐, 시비월 삼밀 인천에 할꺼예요.
 34. #5 시워레 그냥 보고십찌 안나씨요.
 134. #3 예저네도 그거 아라요. 이런 이리 만나요.
 70. #5 근데 서우른 너무 큰니까 가는 시간 만니 걸려요.

종성 /ㄴ/에서의 첨가 오류는 대부분 우리말 음운 규칙의 비음화와 혼동하거나 /ㄴ/음 첨가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은 합성어나 파생어 등의 복합어의 경계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이 /ㄱ/,/ㄷ/,/ㄱ/,/ㄷ/,/ㄱ/,/ㄷ/일 때 /ㄴ/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진루·김영주(2015)에서는 /ㄴ/음 첨가는 단어가 합성 및 파생될 때에 원래는 없었던 /ㄴ/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중국어의 /ㄴ/음 첨가 현상²⁴⁾과도 달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글자만을 보고 /ㄴ/음을 첨가하는 발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ㄴ/첨가와 같은 한국

24) 중국어에서는 /ㄴ/음 첨가 현상이 선행음절의 자음 운미 뒤에 조사 ‘a’를 붙일 때 선행 음절의 끝 음의 영향으로 자음 ‘n’을 첨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nan’a]’에서 ‘[nan na]’가 그 예이다. 중국어의 경우, 선행 음절의 받침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후행 음절의 초성이 자음[n]으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진루·김영주(2015:278)참고.)

어의 음운 규칙 중에서도 특별한 발음 현상들은 학습 시 변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과 반복 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 28> /ㄴ/을 제외한 종성 발음 첨가 오류

자음첨가	ㄱ	ㄷ	ㄹ	ㅁ	ㅂ
	먹 <u>거</u> 요	느 <u>끄</u> 탄	사물 <u>실</u> /사물 <u>시</u> 레	삼 <u>뽀</u> 레	입 <u>브</u> 로
			다음 <u>날</u> 레	삼 <u>밀</u> 또안	
				점 <u>심</u> 메	
				삼 <u>망</u> 년	

<표 28>은 /ㄴ/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의 첨가 오류이다. /ㄴ/과 비슷한 조음방식의 /ㅁ/의 첨가오류가 눈에 띄는데 ‘점심메{점심에}’를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 ‘삼’ 다음에 오는 모음에 앞 음절 종성과 같은 /ㅁ/을 첨가한 양상이다. ‘느끄탄{느긋한}’은 원래 발음인 [느그탄]이 중화와 축약을 거치는 복잡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발음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 (60) 100. #5 아, 그 경보공 가서씨요. 점심메.
- 289. #4 저는 구월따레 이팍하짜나요. 항구 사람들 삼뽀레.
- 216. #6 일향년 업씨요. 삼망년.
- 230. #3 시땅에서 가조드리 모이고 바블 머꼬 새일케이크 먹거요.
- 170. #5 중구 음시는 그냥 입브로 매운느낌 느낄 쑈 이씨요.

또 ‘먹거요{먹어요}’나 ‘입브로{입으로}’는 이 오류를 실현한 각 제보자들이 연음환경에서 특징적인 오류가 없었고 폐쇄음 다음의 경음화도 대부분 실현하였기에 폐쇄음 종성/ㄱ/, /ㄷ/을 인지하고 주의하여 소리 낼 때 범하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IV. 분석과 시사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성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자연 발화에 가까운 상태에서 실제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하고 자 구술 발화 조사를 하였고, 대화에서 나타난 종성 발음의 어휘 목록을 수집, 오류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한국어의 종성에서 실현되는 7개의 자음별로 오류를 살펴보고 발음에서의 오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발음해야 하는 종성을 발음하지 않는 ‘누락’ 오류와 원래 발음해야 하는 자음이 아닌 다른 자음으로 발화하는 ‘대치’ 오류, 발음해야 하는 어휘에 다른 자음을 더해서 발음하는 ‘첨가’ 오류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발화 자료에서 가장 많은 오류 양상이 나타난 누락 오류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순서는 ㄷ(78.4%) > ㅂ(60.6%) > ㄱ(57.8%) > ㄹ(40.5%) > ㄴ(16.1%) > ㅇ(12.0%) > ㅁ(11.6%)로 상위 세 개의 종성 /ㄷ/, /ㅂ/, /ㄱ/은 공통적으로 조음 방식이 같은 폐쇄음이었고, 그 다음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난 /ㄹ/은 유음, 비교적 오류가 적게 나타난 나머지 /ㄴ/, /ㅁ/, /ㅇ/는 비음이였다. /ㄱ/, /ㄷ/, /ㅂ/의 폐쇄음에서의 누락 오류는 대부분 후행하는 인접음이 자음인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누락의 양상을 크게 ‘완전 누락’과 ‘부분 누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부분 누락의 사례들로 볼 때 학습자들은 종성 발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연음과 경음화는 비교적 잘 실현한 반면 자음 축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언+조사’ 환경에서 누락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치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원래 사용해야 하는 조사 ‘과’, ‘은’, ‘을’을 앞 음절의 종성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조사 ‘와’, ‘는’, ‘를’로 대치하였다는 것이다.

종성 /ㄱ/은 앞뒤 음절의 종성이 모두 /ㄱ/인 경우 하나만 발음하거나 둘 다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후행하는 인접음이 자음이거나 어말인 경우 누락 오

류를 저질렀다. 종성 /ㄷ/은 모국어에 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화나 자음 축약 같은 복잡한 음운 규칙을 발음에 적용하여 실현해야 해서 오류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ㅂ/종성을 가진 체언에서는 절반의 누락이 숫자 ‘십’을 발음하지 않아 나타났다. 제보자들이 체언 내에서 연음을 비교적 잘 발음한 것에 비해 숫자 ‘십’이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종성 /ㅂ/ 발음 바로 뒤에 모음이 오는 환경이었음에도 연음을 실현하지 않았다. 종성 /ㅂ/을 포함한 다른 어휘들은 모음 앞에서의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십’의 경우는 예외였고, 다른 어휘에서 후행하는 인접자음에 경음화가 실현된 반면 ‘십’의 뒤에서는 경음화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에서 숫자 ‘십(十)’을 나타내는 발음이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이 비슷한 음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앞뒤로 종성 /ㄹ/이 연속해서 있는 경우나 종성/ㄹ/바로 다음에 /ㄹ/초성이 연속하는 동일 자음 연쇄 환경에서도 다수의 누락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말 초성/ㄹ/에서의 탄설음 발음이 어려워 종성에서의 설측음과 초성에서의 탄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거나 아예 둘 다 발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체언 내에서 뿐만 아니라 목적격조사 ‘을’, ‘를’에서도, 용언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을 누락하는 현상도 종성 /ㄹ/누락 오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음 종성 /ㄴ/, /ㅁ/, /ㅇ/은 비슷한 누락 오류 양상을 보였는데 앞뒤 음절에 비음 종성이 연속해서 있는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은 발음을 어려워하였고, 비음이 종성과 다음 음절의 초성에 연쇄하는 환경에서도 발음을 누락하였다. 이는 장애음의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종성 /ㅇ/의 경우 후행하는 인접음의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은 종성 /ㅇ/의 발음을 회피하였다. 모국어에 있는 종성 발음 /ㄴ/, /ㅇ/보다 /ㅁ/의 오류율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는데 이는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도 영향을 끼치지만 언어 자체의 보편적 특성도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어서 대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의 순서는 ㅁ(19.1%)> ㄱ(17.5%)> ㅂ(7.5%)>ㅇ(5.6%)>ㄴ(3.7%)>ㄹ(2.8%)>ㄷ(0%)로 누락에서는 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던 종성 /ㅁ/에서 대치 오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워했던 /ㄷ/은 누락에서 오류율이 높았던 것에 반해 대치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종성 /ㄴ/에서 /ㅇ/으로, 종성 /ㅇ/에서는 /ㄴ/으로의 상호 대치라고 할 수 있다. 비음 종성 /ㅁ/, /ㄴ/, /ㅇ/은 조음방식이 유사한 영향으로 종성간의 혼동이 잦고 서로 상호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성 /ㄹ/이 /ㄴ/과 /ㅇ/으로만 대치하여 실현된 것도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모국어의 종성 발음으로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ㄴ/, /ㅁ/, /ㅇ/의 비음간의 대치가 주로 발견된 것처럼 /ㄱ/, /ㄷ/, /ㅈ/의 폐쇄음끼리도 대치 오류가 상호간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첨가에서의 오류는 종성 /ㄴ/에 자음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오류가 모든 제보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ㄴ/첨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한국어의 축약이나 첨가와 같은 특별한 음운 규칙은 숙달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에서의 누락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외래어 발음 교육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여러 가지 음운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모국어와 다른 형태의 초,중,종성의 조합과 같은 언어 현상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오류를 많이 실현했다 하더라도 후행인접음에서 경음화를 실현하고, 연음에서는 발음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종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아예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다만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습관적으로 누락하고 발음하기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종성의 발음 연습과 교정이 필요하고, 연음이나 경음화 실현에 비해 음운 축약은 잘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통해 음운 규칙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임에도 외래어와 겹받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그 부분도 숙달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어휘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우리말의 음운 체계 이해 부족과 동시에 유창성의 문제로도 생각된다.

그 외에 공통적인 오류 이외에 개별적인 오류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와 #5는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ㄹ/에서 누락 오류를 많이 보였고, #5는 다른 오류에 비해 /ㄴ/첨가 오류가 특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2는 /ㄱ/에서 대치 오

류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오류는 출신 지역이나 개인적인 유창성 부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별, 성별, 한국어 학습 기간별 등의 기준을 세워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다른 제보자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술 발화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개별적 오류는 개인에게 따로 주시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연습과 재복습이 필요하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보자들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로 한정했지만 초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술 발화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발음 오류의 양상을 살펴 보면 수준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고, 숙달도에 따라 어떤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나거나 덜 나타나는지 밝힐 수 있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류의 유형별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 전과 후의 오류 양상을 비교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초급에서뿐만 아니라 중, 고급에서도 끊임없는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오류 유형을 기반으로 교수 방안을 모색해보자면 체언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조사나 형태소와 같은 인접 어휘와 통으로 묶어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 용언은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형의 발음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소나 음절보다는 실제 발화에서 쓰이는 어절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종성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누락, 대치, 첨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계획된 단어나 문장, 설문 위주의 조사를 벗어나 보다 실제적인 오류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발화상태에서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위해 지역어 조사에서 그 지역의 토박이를 통해 발화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을 한국어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차용하였다. 구술 발화 조사 방법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면서 조사자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고,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종성 발음 오류 이외의 다른 발음 오류나 문법적 오류와 같은 여러 오류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적절하다. 또 제보자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거나 다른 제보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별적 오류 발견에도 용이하여 분석 결과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 지도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I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고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 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II에서 구술 발화란 무엇인지, 구술 발화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질문지 항목과 제보자 선택, 전사 방법의 부분으로 나누어 고민하고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구술 조사 방식의 의의를 논하였다. III에서는 실제 구술 발화 조사 자료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누락, 대치, 첨가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IV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오류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논하였다.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을 이용한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오류 예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 상태에서 체언의 경우 조사와 함께 쓰이는 환경에서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용언의 경우 활용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발음되는지 다각도에서 오류 예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조사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구술 발화 조사 방식은 한국어 연구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앞으

로의 연구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제보자의 수나 조건 등의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오류를 조사하는 방법론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구술 발화 자료가 차츰 누적되면 기존 자료와 비교와 대조도 가능하고 연구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자료로 손색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음절 말에는 우리말과 달리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n], [ŋ] 뿐이고, 이 종성 발음에 함께 사용가능한 모음의 종류도 한정적이다. 음절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에서의 발음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예상대로 폐쇄음에서 누락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연음이나 경음화는 실현하면서 종성만 누락하는 ‘부분 누락’과 같은 어휘임에도 오류를 실현하기도 하고 바르게 발음하기도 하는 등, 종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음운 축약과 비음화와 같은 복잡한 음운 규칙이나 겹받침의 발음을 어려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치에서는 모국어에 있는 발음인 /ㄴ/과 /ㅇ/의 상호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비음 간의 뚜렷한 대치 양상을 보임으로써 조음 방식이 같은 종성들을 서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첨가 오류는 모든 제보자들이 종성 /ㄴ/에서 가장 많이 실현하였는데 동일한 자음을 첨가하는 형태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국어의 ‘ㄴ첨가’ 음운 규칙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오류 양상을 토대로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서 체언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조사나 형태소와 같은 인접한 상황을 고려한 어휘와 통으로 묶어서 발음 교육해야 하며, 용언은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형의 발음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발적인 음소나 음절보다는 실제 발화에서 쓰이는 어절 이상 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모국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종성 발음이 있다는 것과 그 발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종성 발음이 초성과는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도 반드시 짚어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음 학습을 초급 단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숙달도에 따라 제시하는 음운 규칙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학습자에게 늘 익혀야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4),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3단계』,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 김정대(2009), 「방언의 수집과 전사에 대하여 -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 『배달말』 45, 1-41.
- 김정대(2014), 「'이 시대' 방언 조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연구』 37, 5-44.
- 김지혜(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진석(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특성 연구 : 숙달도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진호(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비음화 오류 현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7, 123-142,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 김태경·박초롱(2014),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55, 5-34.
- 김태경·백경미(2015), 「중국인 한국어학습자의 음운규칙 적용 양상 연구」, 『우리말글』 64, 117-151.
- 남윤주·홍우평(2014), 「L2로서의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 『통일인문학』 57, 193-220.
- 박경래(2007), 「구술 발화의 조사와 정리」, 『방언학』 6, 73-116.
- 박숙희(2013), 『한국어 발음 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 박시균·최경복(2014), 「중국인 학습자의 겹받침 발음 오류 분석: 겹받침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22, 317-338.
- 배영환(2007), 「국어 음운론에서의 "패러다임"의 성격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78, 319-341.

- 백소영(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지도방법」, 『외국어교육연구』 22, 77-88.
- 백열추(2017),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백경미(2014),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자음 탈락 현상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발화를 대상으로 -」, 『국제어문』, 63, 51-66
- 백경미(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 발화에 나타난 자음 대치 오류 연구 - 초성과 종성 환경을 중심으로」, 『언어학26』, 179-197.
- 신호철(2003),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16, 253-272.
- 양순임(2005), 「한국어교육학회 50주년 기념 특집 : 일반 논문 ; 한국어 음절 종성의 발음 교육」, 『국어교육』 117, 493-519.
- 왕리·김영주(2013), 「한국어 종성 발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분석 -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44, 109-140.
- 위국봉(2014), 「중국인 학습자의 /-ㄴ, -ㅇ/종성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정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1, 143-169.
- 유소영·강현화(2018),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 음소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4, 357-397.
- 윤영해(2016), 『한국어 학습자들의 종성 발음 연구 :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화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윤은경(2013), 「한국어 종성의 습득 연구를 위한 음성·음운적 접근」, 『동악어문학』 61, 421-442.
- 이강희·유광복(201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음성 신호 파라미터들의 비교 연구 - 한국어의 /ㄹ/ 발음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 239-246.
- 이기갑(2010), 「구술 발화와 담화분석」, 『배달말』 47,
- 이은주·우인혜(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ㄱ, ㄷ, ㅂ/ 발음 교육 방안 - 한국어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반대로 적용하여 -」, 『새국어교육』 97, 327-359.

- 이원(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병운(2008), 「중국어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 분석」, 『우리말연구』 23, 193-228.
- 장찌엔(2017), 「중국어인 학습자 비음 종성 /ㄴ/, /ㅇ/ 음절의 발음 오류 재고-한·중 음절 유형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28, 251-268.
- 장향실(2015), 「음소결합제약을 통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ㄴ/, /ㅇ/ 종성 오류 예측」, 『한국어학』 69, 225-244.
- 장향실(2016), 「중국어와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음절 종성 산출 차이 연구」, 『우리어문연구』 55, 555-579.
- 정효주·김영주(2012), 「중국어인 학습자의 유음화 발음 오류 연구」, 『한말연구』 31, 283-307.
- 조민하·여문리(2017), 「중국어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 방안 연구 - 인지와 산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3, 195-220.
- 진루·김영주(2015), 「한국어 /ㄴ/음 첨가에 대한 교육의 효과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277-307.
- 최금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한 중국어 장애음의 한글표음 문제 재검토」, 『중국어언어연구』 18, 321-339.
- 하신영(2016)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발음 양상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자연 발화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 17, 235-260.
- 하신영(2018) 「한국어 발음 교육용 발음 규칙과 음절구조제약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8, 405-429.
- 한서인(2011),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규칙 교육 방안: 연음규칙과 겹받침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허용·김선정(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 허용 외(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황화상(2013), 『현대국어 형태론』,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 후 지아루(2015), 『중국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bstract >

A Study on the Final consonant pronunciation errors of Chinese Korean learners

kyung-Hee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wan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Chinese learners who are learning Korean as errors, omissions, substitutions, and additions. In an attempt to collect data in the most natural ignition state to investigate more practical errors, beyond the existing planned word, sentence or questionnaire-based survey, the oral method used to collect the ignition in the local language survey, was borrowed to suit the purpose of the Korean study. Oral speech research methods are appropriate to investigate various error patterns such as phonetic errors and grammatical errors other than the bell sound pronunciation errors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because the investigator can appropriately intervene while collecting spontaneous utterances. In addition to the common mistakes that occur in the whole of the Speaker, it is also easy to find individual errors that are particularly frequent in individuals or can not be found in other Speakers, and can provide personalized guidance through individu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which was investigated using verbal spoken method,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whole context with previous studies,

but there were many examples of errors and patterns. In the previous research, it was not possible to investigate the error cases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type of utterance when combining with other postpositions in the environment used with the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cognition in the actual utterance stat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poken dialogue method can be applied to Korean language research well and it will have a ripple effect in future research. Of course, the number and condition of the informants we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but it is meaningful that new possibilities were opened in the methodology of investigating various erro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ompare and contrast with existing data and to extend the scope of research.

In the case of the closed tone of the mother tongue /ㄱ/, /ㄷ/, /ㅁ/ without the pronunciation in the mother tongue, the error of the missing occurred most frequently. In Chinese syllables, there are only consonants [n] and [ŋ] that can be different from Korean, and the kinds of vowels that can be used together with this pronunciations are also limited. Because of differences in syllable structure, there are many errors that can not be pronounced in Korean or not. However, this study has found several instances in which it is recognized that it is not pronouncing, and that it is not customary to do so, such as omitting the ending or losing the ending, realizing the error even when the same vocabulary is realized and correct pronunciation. We can also see that we do not fully understand the phonological rules of Korean such as nasalization and abbreviation.

In confrontation, there were many errors of mutual substitution between /ㄴ/ and /ㅇ/ in the mother tongue. By show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ㄱ/, /ㄴ/, /ㅇ/.

The addition errors were most common in the ending /ㄴ/ of all

informants, and errors appeared in the form of adding the same consonants, which seems to be misunderstood or misapplied to the Korean addition syllable rules.

Based on the error patterns revealed in the present study, it is necessary to teach pronunciation in the future by combining the vocabulary with the vocabulary considering the adjacent situations such as the survey or the morpheme frequently us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each various forms of pronunciation more than a word or phrase that is used in actual speech rather than a single word or syllable. Also,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 the learning environment, learn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nunciations that appear only in Korean, unlike their mother tongu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not to limit the pronunciation learning to the beginner level, bu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the phonological rules to be presented according to the proficiency and to recognize that it should be taught by the learners.

